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75호

Tuesday, July 23, 2024 A

## 바이든 사퇴... 미국인 표심의 향방은?

워싱턴 한인 대선 표심도 ‘일대혼란’  
“바이든 사퇴 안타깝지만 해리스도 못 믿어”

미국의 근현대 역사상 이토록 드라마틱한 대선 레이스가 펼쳐진 적 있던가. 형사 기소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압도적인 인기 속에 암살 미수 사건까지 터지며 당선 가능성은 더욱 치솟았다. 현직 대통령은 고령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선후보 토론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 후 정당 수뇌부와 언론의 집중적인 사퇴 압력을 받다가 결국 굴복해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폭풍 속 소용돌이와 같은 국면에 놓여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현재, 민주당은 안개 속이다. 대통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대선 주자로 지지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후보사퇴 선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일부 인사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선을 세 달 채 남기지 않은 오는 8월19일 개막한다. 그때까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카말라 해리스가 대선후보로 확정되지 못한다면, 제3의 인물이 민주당 후보로 등극해 세 달 동안 대선 레이스를 질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30년 가까이 투표하면서 한번도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준 적이 없었던 한인남성 백 모씨(61)는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표를 주기 망설여졌다”면서 “사리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데, 핵가방의 핵단추를 실수로 눌

렀다고 변명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백씨는 “대통령 후보가 해리스로 확정된다면 나는 이번 대선을 심각하게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트럼프 시대의 백인인종주의 준동에 혀를 내둘렀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흑인들의 꼴사나운 작태도 함께 목격했기에, 흑인을 중심으로 한 극좌적인 민주당 흐름에 동조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와서 미국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인 여성 유 모씨(40)는 “선거 때마다 사안에 따라 선택을 달리했던 부동층인데,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주 검찰총장, 연방상원의원을 하면서 걸어온 정치적 노선은 나의 정치적 신념과 100% 일치한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유씨는 “내가 여성이지만, 여자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아직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박세용, 김옥채 기자  
▶ 5면 ‘바이든’으로 이어집니다  
관계기사 4, 5, 6면



김민기  
1951~2024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쬐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김민기 노래 ‘아침이슬’

▶ 관계기사 13면

##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

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Care People Home Health**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정,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8/5 ~ 8/9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   |  |   |  |   |
|---|--|---|--|---|
| Centreville (Main Office)                     | Annandale (사랑방)                                | Annandale (V)                                     | Richmond                                   | Gaithersburg (MD)                               |
|   |  |   |  |   |
| 14631 Route 29, #401<br>Centreville, VA 20121 | 4306 Evergreen Ln. #104<br>Annandale, VA 22003 | 4312-D Evergreen Ln. #L3-2<br>Annandale, VA 22003 | 11212 Oakstone Dr.<br>Glen Allen, VA 23060 | 901 Russell Ave. #150<br>Gaithersburg, MD 20879 |

## 커피값 부담에 '홈카페' 인기

#. 매일 커피 2~3잔을 사먹는 직장인 K씨는 한달 커피값이 400달러나 나가는 것을 보고 최근 커피 머신을 구입했다. 캡슐만 넣고 내려 먹으면 되는 데다가 한 달에 25달러면 20잔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 LA한인타운에서 회사에 다니는 J씨는 개인용 커피 머신을 사무실에 두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동료들과도 나눠 먹을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커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원두나 캡슐커피로 직접 만든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 시장이 활황을 누리고 있다.

최근 NBC뉴스에 따르면 국내 주요 커피 체인점의 커피 가격은 2021년 대비 올해 약 23% 인상됐고, 이는 소비자들이 집에서 직접 커피를 즐기는 추세를 촉진하고 있다.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양은 4년 전 대비 8%가 감소했다. 팬데믹 이후 홈카페의 보급 확대, 커피값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소비가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요 체인점의 커피 한 잔의 평균 가격은 4.76달러로 3년 전 3.97달러에 비하면 0.79달러나 비싸졌다. 콜드브루 한 잔의 평균 가격은 3년 전보다 1.24달러가 오른 4.41달러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떼 한 잔의 평균 가격은 5.50달러로 2021년에 비해 23%가 뛰었다. 2~3달러면 사마실 수 있었던 블랙커피의 경우 현재 3.50달러~4달러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요 원두 생산국의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공급망 차질, 운송비용 증가, 노동 부족, 인플레이션 압박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보도했다.

이로 인해, 홈카페 관련 업체들이 앞다퉀 신제품을 내놓고 관련 서비스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정용 커피 머신 시장의 규모는 올해 30억6000만 달러에서 2029년 41억8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시장 조사 업체 모



커피 가격이 급등하자 소비자들이 저렴한 원두나 캡슐로 직접 커피를 만드는 홈카페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직장인들이 사무실 한 칸에 모여 커피를 직접 내려 나눠 마시고 있다. 박낙희 기자

르도 인텔리전스는 내다봤다.

4월 인스턴트 커피 제조업체 네스카페는 차가운 액체에 녹는 커피(7.39달러)를 출시했다. 업체는 “카페에서 사먹는 음료 한 잔 가격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수십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 머신 제조회사 큐리그는 올해 집에서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커피머신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뜨거운 커피를 추출한 후 3분 이내에 아이스 커피로 냉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은 약 200달러다. 제품 관리 수석 부사장 조쉬 윌렛은 최근 홍보 영상에서 “집에서 카페 수준의 음료를 즐기거나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했다”고 제품을 소개했다.

커피를 직접 만드는 강좌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핸드드립과 라떼아트 강좌를 운영하는 데이브 워드씨는 “최근 모든 클래스가 매진될 정도로 예약이 급증했다”고 말하며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것을 보면, 직접 만든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코스허어로가 LA지역에서 진행하는 전문적인 바리스타 강좌는 한 클래스당 180달러이며, 간단한 커피 추출법과 로스팅을 배우는 코스는 90달러다.

정하은 기자

## '질식사' 조나단정 유가족 "패소"

카지노는 배상금 책임 벗어나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보안요원들에 의해 숨진 조나단정(사진)씨 사건과 관련, 유가족 측이 패소했다. 원고인 유가족 측 변호인단(테렌스 존스·민 응우옌)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카지노 측과의 법적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담당판사 패트리 매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보안요원들의 행위가 정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판결은 지난 9일 이루어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씨의 사망 원인이었다. 유가족 측은 보안요원들의 과잉 진압에 따른 질식사를 주장했다. 반면, 카지노 측은 LA 카운티 검시관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씨가 메스암페타민에 의해 사망했다고 맞섰다.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보안 요원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렇다고 보안 요원들의 제지 행



위가 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거물에 대한 공개 금지 결정이 뒤집힌 것이 계기가 됐다. 당초 판사는 과거 정씨의 약물 사용 기록, 정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약물 등의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가 허용된 증거 자료는 사망 당시 정씨의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됐는지와 해당 약물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록뿐이었다. 질식사과 약물에 의한 사망 등 두 가지 사망 원인을 놓고 명확히 다루겠다는 의미였다.

원고 측 민 응우옌 변호사는 “휴정 이후 법원은 (과거 약물 기록 등의 공개 금지) 이러한 결정을 번복했다”며 “정씨는 마약 판매상이 아닌데도 그렇게 묘사됐고 이러한 점이 배심원단 평

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카지노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원고 측은 이번 재판에서 카지노 측에 1억3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본지는 지난 11일 바이시클 카지노 한 관계자에게 승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정씨의 아버지 정정식(82)씨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16일 “이 사회에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가족 측은 항소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아시아계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규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 중 테렌스 존스 변호사는 흑인이다. 존스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회적 무관심을 안타까워했다.

장열 기자

## 플브라이트-헤이즈 후원 한국 연수

뉴저지 현직 교사들이 한국 교육과 문화, 기술혁신을 배우기 위해 7월 한달간 진행되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연방교육부 플브라이트-헤이즈 프로그램이 지원하고 윌리엄페터슨 뉴저지 주립대가 주관하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는 뉴저지 9개 중·고등학교 현직 교사 10명과 윌리엄페터슨대학 졸업생 예비교사 4명이 참가 중이다.

윌리엄페터슨 뉴저지 주립대 측에 따르면 연수단은 지난 16일 수원 외국어 고등학교를 방문, 영어, 과학, 사회, 미술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다.

연수단은 수원외고 방문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을 견학하고, 한국 문화 체험 및 교육, 문화, 정치,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가 초빙 특강 등을 통해 한국의 교육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중·고교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강의 계획서를 개발하게 된다.

연수 프로그램을 주관한 윌리엄페터슨 대학교 흥은영(교육학과) 교수는 “뉴저지 공립학교에 아시아계 역사교육이 의무화 되는 등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미국 공교육에서 역사/문화 교육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 위주”라며 “윌리엄페터슨대 연수단은 한국 방문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다른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업용 교육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공동 디렉터인 유경환(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최근 교육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미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수-앤 알론소 웨인밸리고등학교 교사가 초급 쿠키를 사용한 환경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윌리엄페터슨대 제공)

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모범이 되는 한국 사례들을 배워 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윌리엄페터슨 대학은 지난 2014년에도 교사 및 예비교사 12명을 선발해 한국 연수를 수행한 바 있다. 윌리엄페터슨대는 또 한국학진흥원 씨앗형 그랜트를 통해 최근 3년에 걸쳐 (2020~2023) 학부생 13명의 여름 한국 연수를 심사시켰으며, 2022년엔 한국 학부생과 과정을 신설했다.

**워싱턴 날씨 (°F)**

|        |       |    |        |       |    |
|--------|-------|----|--------|-------|----|
| 24일(수) | 86~73 | ☀️ | 27일(토) | 88~68 | ☁️ |
| 25일(목) | 86~69 | ☁️ | 28일(일) | 90~68 | ☀️ |
| 26일(금) | 88~66 | ☁️ | 29일(월) | 90~70 | ☁️ |

7월 23일(화) 89~74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 은퇴계좌 조기 인출 쉬워졌다

<401(k)·IRA>

국세청, 허용 조건 일부 완화  
페널티 없이 연간 1000불까지  
1년에 한번 가능, 소득세 대상

은퇴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1000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돼 긴급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난 2022년 통과돼 올해부터 발효된 은퇴법의 일부인 규정 401(k) SECURE Act 2.0에 따라 1년에 한 번 1000달러를 제약 없이 은퇴계좌로부터 조기 인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은퇴계좌에서의 조기 인출은 보통 10%의 페널티와 함께 면세 혜택서 제외

돼 세금도 내야 한다.

국세청(IRS)이 명시한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나 배우자의 장례비 등 조건이 까다로워 페널티를 피하기 쉽지 않다. 재산 및 자산 운용 전문가인 아메리츠파이낸셜의 장윤정 매니저는 “조기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 규정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서 조기 인출이 훨씬 쉬워졌다. 사용처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것과 다르다. 다만 모든 은퇴계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01(k)와 같은 직장연금이나 개인은퇴계좌(IRA) 중 일부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1000달러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하려면 은퇴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또한 긴급 인출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긴급인출을 진행하고 3년 안이라면 1000달러를 다시 은퇴계좌에 입금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은퇴계좌의 긴급 인출이 최근 몇 년간 늘었다면서 물가 고공행진과 늘어난 크레디 카드 연체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캐서린 콜리전 전국은 퇴연금센터(TCRS) 회장은 “많은 근로자가 긴급한 상황에 쓸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1000달러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 VA·MD ‘H마트 채널추가’ 이벤트

미주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H 마트의 “카카오톡 H마트 채널 추가” 이벤트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카카오톡 채널을 새로 추가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9월22일까지 진행되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10달러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은 고객들에게 주간 세일 소식은 물론 매장 정보, 스마트카드 혜택 등 다양한 H마트 관련 소식 및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가 제공돼 언제 어디서든 H마트에 대한 고객 의견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H마트는 “고객과 소통 강화 및 편리한 쇼핑 경험 제공 위해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 전했다. 버지니아 지역과 메릴랜드 지역 H마트 카카오톡 채널 추가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H Mart VA’ 또는 ‘H Mart MD’를 입력해 추가할 수 있다. >문의: 877-427-7386 H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

# 삼성전자, 소비자 만족도 최다 1위

JD파워 ‘생활가전’ 평가  
11개 품목중 10개 석권

삼성전자는 최근 시장조사기관 JD파워가 발표한 ‘2024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최다 품목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주방·세탁가전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19일 밝혔다.

JD파워는 최근 1년간 제품을 구매한 1만50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내구성, 성능, 사용 편의성, 디자인 등 7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브랜드별 순위를 매년 발표한다.

가전은 총 11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삼성전자는 주방가전 7개 품목과 세탁가전 3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JD파워가 조사한 가전 브랜드 가운데 최다 품목 1위로, 삼성전자는 2021년에 세운 9개 품목 1위 기록도 경신했다.

품목별로 삼성전자의 프렌치도어(FDR) 냉장고, 상냉동·하냉장(TMF) 냉장고, 양문형(SBS) 냉장고, 레인지, 쿡탑,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 빌트인 오븐이 1위에 올랐다. 특히 냉장고 3개 품목은 7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년 연속 1위, 상냉동·하냉장 냉장고는 3

년 연속 1위다.

국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입인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2가지 종류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듀얼 아이스 메이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냉장·냉동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존’, 마신 만큼 자동으로 물을 채워주는 ‘오토필 정수기’ 등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조리기기는 레인지, 빌트인 오븐 등 전 품목 1위로, 이중 레인지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빌트인 오븐은 내부에 탑재된 카메라로 요리 장면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올해 새롭게 1위에 올랐다. 세탁가전 3종인 드럼 세탁기·전자동 세탁기·건조기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 현대·제네시스 6만7000여대 연료 펌프·변속기 제어 문제



현대차가 약 6만7000대를 리콜한다. 현대 측이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2개의 서한에 따르면, 연료 펌프 및 변속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리콜 사유다.

연료 펌프 문제 해당 모델은 특정

2019~2023년형 제네시스 G70·벨로스터 N·엘란트라 N(사진)·코나 N 등 총 5만4647대다. 차 소유주는 9월 9일까지 서면 리콜 관련 통지서를 받게 된

다. 가까운 현대 딜러를 방문하면 업데이트된 연료제어밸브와 엔진제어모듈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변속기 제어장치 문제 관련 모델은 2024년형 현대 산타페 SUV로 총 1만 2349대가 리콜된다. 딜러 방문으로 변속기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듀얼클러치 검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서재선 기자**

# 렌트비 상승 둔화... 임차인 고통 여전

주택 임대료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임차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할 것이라고 포क्स비즈니스가 지난 18일 보도했다.

임차인들이 팬데믹(대유행) 이전보다 여전히 300달러나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क्स비즈니스는 리얼토닷컴의 보고서 인용해 월룸인 스튜디오에서 투룸인 아파트의 경우 중간 임대료가 전년 대비 0.4% 하락한 1732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임대료는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2022년 8월에 기

록했던 고점 대비 0.6%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는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임대료가 최대 40%까지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플로리다 탬파의 경우 최근 5년동안 가장 큰 폭으로 임대료가 상승했다.

2019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상위 10개 시장 중 약 절반이 남부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의 탬파는 임대료가 39%나 올랐고 중간 임대료는 1752달러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500달러나 더 높은 수준이다.

# ‘부채도사’ 개그맨 장두석 별세



1980~90년대 인기를 누린 개그맨 장두석(사진)이 22일 별세했다. 67세.

대한민국방송코미디협회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8시 지병인 신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80년 TBC 제2회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한 고인

은 ‘부채도사’ ‘시커먼스’ 코너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빈소는 서울 여의도성모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8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피스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간호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융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 민주당 새 대선후보 선출 땐, 대의원 과반 지지 얻어야

**민주당, 24일 지명절차 논의 예정**  
내달 후보등록일 전 온라인투표 전망  
과반 득표 못 하면 전대서 최종 결정  
일각 “홍행위해 미니경선이라도 해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후보 사퇴로 뒤를 이을 후보자 선출 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 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지만, 복수의 후보가 나설 경우 투표를 치르는 등 선택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새 대선후보 선출은 내달 초로 예정된 가상투표(온라인 투표)로 선출하거나, 내달 19~22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된다. 두 경우 모두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 유력한 대체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단독 후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규칙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새 대선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새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전국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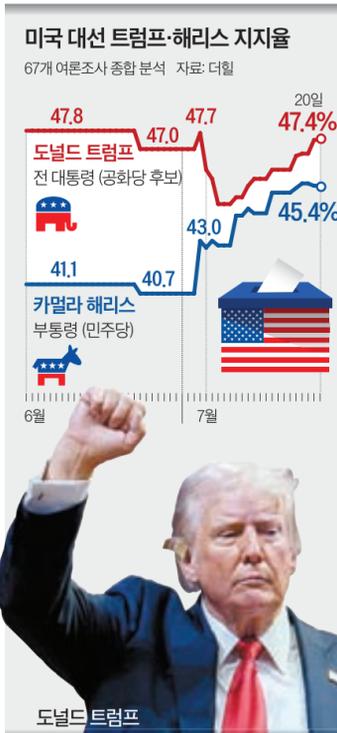
온라인 투표가 실시된다면 내달 7일 이전에 이뤄질 수 있다. 오하이오주 주법이 8월 7일까지 대선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의원들이 9월 1일로 등록일을 변경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원래 날짜를 고수하자는 의견이 있다. 일부 주에선 8월에 투표용지 등록이 마감되고, 9월부터 조기 투표에 들어가는 지역도 있는 등 선거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해리스 부통령이 과반 득표를 하면 후보로 확정될 수 있다. 하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전대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대에 나서려면 최소 300여 명의 대의원 서명이 필요한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한 주에서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실제 전대에선 총 3949명의 대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가 실시되는데, 2차 투표부터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멤버나 선출직(상·하원 의원, 주지사), 전직 정·부통령 등 당 고위층 749명으로 구성된 ‘슈퍼 대의원’도 투표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WP는 “(출마 후보들은) 개별 대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막후에서 엄청난 정치적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에 한 사람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의원 확보의 공정성을 문제삼을 수 있던 지적도 나온다. NYT는 “현재



지난해 2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 민주당 전국위원회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후보 사퇴한



대의원 전체 명단에 대해 접근이 가능한 건 민주당 전국위 당직자들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바이든 캠프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홍행을 염려해 후보 승계보다는 작은 규모의 경선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교체 후보는 경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불리한 판세를 극복하려면 자동승계 대신 경선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펠로시 전 의장은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

는 예비선거 방식이 바람직하단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자신의 X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당당히 당 대선후보가 돼서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 트럼프 “해리스가 이기기 더 쉽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직도 사퇴를”

미국 공화당 대통령·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상원의원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자 ‘바이든·해리스 공동책임론’을 들어 파상공세를 폈다. 민주당 대선후보 승계 가능성이 높은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기선 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며 “좌파가 누굴 후보로 내세우든 (바이든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CBS 인터뷰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지는 확인할 수 없

다”면서 자신의 선거운동 진행 방식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새 후보가 누가 되든 바이든 행정부에 맞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 후보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은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이며, 해리스는 그 모든 과

정을 함께했다”면서 “지난 4년간 해리스는 주택·식료품 비용을 상승시킨 국경 개방 정책과 녹색 사기 정책에 같이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거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의 인연이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과 2013년 해리스의 선거운동을 위해 총 6000달러(약 833만원)를 기부한 적이 있다. 이에 CNN은 “해리스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해리스는 전 기부와 대결하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정계 입문 전 민주·공화당 양쪽에 자주 기부를 했다고 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 DARCARS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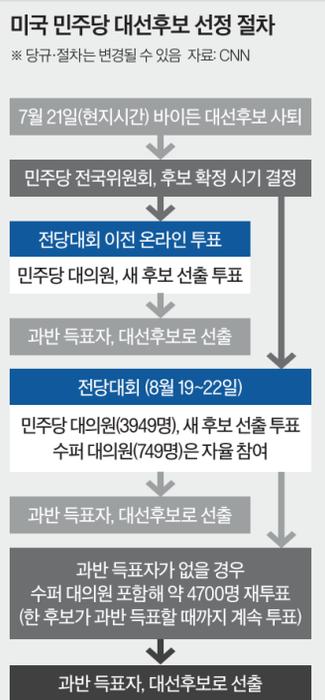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최초 여성·흑인 부통령 ... 낙태권 옹호 등 여성표심 유리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해리스 부통령.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된다. [AFP=연합뉴스]



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례 없는 길을 개척하며 싸우는 건 해리스에게 새로운 일이 아니다”고 평했다. 해리스는 미국에서 여성·유색 인종으로서 최고직(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아시아 계 등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집토끼)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이날 유권자 단체 ‘흑인의 투표권도 중요하다’는 환영 성명을 냈다.

해리스는 1964년 미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에서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어머니는 과학자였다. 해리스는 흑인 민권운동을 했던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민권운동을 접하며 자랐다.

해리스는 ‘흑인들의 하버드’로 불리는 명문 하워드대를 나와 UC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졸업한 뒤 1990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39세 때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46세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됐다. 법무장관 시절 열정적인 연설 스타일로 ‘여자 오바마’란 별명을 얻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5년 넘게 법조인으로 일하며 범죄를 감소시키는 등의 업적을 쌓은 점이 그의 강점”이라고 했다. 그는 2016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는데, 흑인 여성으로는 두 번째 임성이었다.

검사 경력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언

변이 그의 강점이다. 아울러 이번 미 대선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여성 유권자를 상대로 해리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편인 변호사 더글러스 엠호프가 유대계인 점은 ‘유대계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 최초의 ‘세컨드 젠트맨’이었던 엠호프는 미 최초의 ‘퍼스트 젠트맨’이 된다.

또한 현지 언론은 해리스의 나이가 트럼프보다 19세 어린 점이 유리하게 작용해 트럼프의 ‘고령 리스크’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현실적으로 해리스는 바이든과 함께 이름을 걸고 선거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승계받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해리스는 부통령 재임 중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도 받는다. 부통령으로서의 최근 지지율도 30~40%에 그쳤다. 해리스는 또 부통령으로서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웃음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또한 ‘바이든 후계자’란 이미지가 바이든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는 2022년 9월 단독 방한해 판문점을 찾아 “한·미 동맹은 강철같이 굳건하다”며 “북한은 잔인한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다.

임선영 기자

‘바이든 지지’ 엮은 해리스 누구  
열정적 연설로 ‘여자 오바마’ 별명  
방한 때 “북한, 잔인한 독재국” 비판  
존재감은 약해, 바이든 차별화 관건

‘해리스를 대통령으로(Harris for President).’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의 명칭이 21일 이렇게 바뀌었다. 이날 대선후보를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면서 해리스가 민주당의 ‘1순위 대선후보’로 떠올랐다.

해리스 자신도 “대선후보가 돼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후보)를 물리칠 것”이라고 도전장을 냈다.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 그는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게 된다.

11월 대선까지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주어질 시간은 불과 107일이다. 워싱턴

▶ 1번 ‘바이든’에서 이어집니다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찍었다는 한인 남성 성 모씨(74)는 “트럼프를 찍었다는 사실이 자식들에게 알려져 사이가 많이 벌어졌고 이후 트럼프가 김정은과 손을 잡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아 바이든으로 돌아섰었다”면서 “바이든 나이가 많긴 하지만 때로 달려들어 조리돌림 하듯이 불출마를 협박하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바이든이 6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장거리 유세를 다녀오느라 에너지 소모가 많았을 뿐인데, 마치 곧 죽을 노인네 취급을 한 것은 노인 학대였다”면서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고 해리스도 바이든 낙마를 부추긴 인물이라 생각돼 11월에 누구 찍을지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신을 셸리라고 밝힌 한인 여성 최 모씨(50대)는 “왜 내 맘에 드는 후보는 없는거죠?”라고 반문하며 해리스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이 많은 한인 남성 광 모씨(59)는 “남들은 미국 이슈와 자기 이념성향에 따라 투표한 다지만, 나는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찍어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4년동안 윤석열 정부와 짝짜꿍이 돼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걸 보자니, 민주당 DNA를 물려받은 해리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곽씨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하고 북핵문제를 풀어보려는 의지를 가

진 것은 알고 있으나, 결국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이었을 뿐이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물러난 꼴이니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힘들다”며 아직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인 여성 이 모씨(50대)는 “해리스가 나이 많은 흑인 남성정치인의 정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나의 윤리관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모자도 가지고 있다는 트럼

프 지지자 한인 남성 윤 모씨는 “민주당 패거리들이 검찰총장 대 범죄자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검찰총장이 직선제로 뽑히는 선출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구약 정치인 대 참신한 정치인 싸움”이라고 반박했다.

윤씨는 “50대 후보 대 70대 후보라는 대결구도 또한 부당하다”면서 “총격을 당하고도 파이팅을 외치는 트럼프에게서 80대 노인의 이미지를 상상하긴 쉽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세용, 김옥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주인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주인  
맞춤형 자산의 주인  
맞춤형 자산의 주인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uro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굤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고령 프레임 끝, 세대 대결로...트럼프 우세하지만 장담 못 해”

### 미국 정치 전문가 4명 설문해보니 전·현직 리턴매치서 성·인종 대결로 “유색인종·여성, 민감한 이슈 될 전망”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21일(현지시간) 공식이 된 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재 로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경우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였던 대선 구도가 성·세대·인종 대결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중앙일보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직후 미국 정치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다.

이들은 트럼프 대 해리스로 선거판이 재편될 경우 4년 내내 바이든의 고�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선거전략을

펼쳐왔던 공화당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81세인 바이든 대신 59세의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할 경우 “고령 프레임에서 벗어난 새로운 선거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머스 슈워츠 밴더빌트대 교수는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월등히 젊고 활기차 보인다”며 “또 아프리카-아시아 계를 절반씩 배경으로 한 민주당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출마 자체가 역사적인 일로 평가되면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버트 슈멜 노터데임대 교수는 “백인 남성이 아닌 유색인종의 여성과 대결하게 된 트럼프는 ‘수위 조절’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막말에 가까운 트럼프의 공격이 지나칠 경우 유색인

종과 여성의 반감을 증폭시킬 수 있어 공화당도 전략적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의 강점으로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흡인력을 꼽았다. 웬디 쉐러 브라운대 교수는 “흑인 여성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민주당이 승리하느냐를 결정할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특히 해리스가 민주당 핵심 의제인 여성과 낙태 문제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여성 유권자들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태판 슈밋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도 “해리스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또 유색인종 여성의 등장으로 인종 이슈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인도계 여성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JD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점과 맞물려 현재 국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반격 포인트로는 국경 문제와 해리스의 급진성을 부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슈멜 교수는 “트럼프는 해리스가 바이든 정부에 공조했고, 바이든보다 더 급진적이며, 핵심 공격 포인트인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를 맡아왔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을 맡은 점은 해리스에게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슈워츠 교수 역시 “트럼프는 해리스를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과 이민 정책을 주도한 인물로 몰아세울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 캠페인의 핵심 프레임은 여성과 인종을 내세운 해리스와 국경과 급진성을 공격하는 트럼프의 구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11월 대선 결과에 대해 슈밋 교수는 판단을 보류하면서 “바이든 사퇴로 선거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대선 판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슈멜 교수 역시 “트럼프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슈워츠 교수는 “트럼프의 즉흥성과 변덕스러운 등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해리스가 이길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현=강태화 특파원



## “바이든 사퇴문구 최측근 2명에 맡겨 참모들도 발표 1분 전어야 알아”

### 발표 전날 질 여사 등 가족회의 뒤 델라웨어 자택에 측근 2명 호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는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핵심 참모 극소수만 공유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바이든을 대신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발표 당일야 사퇴 사실을 알게 됐고, 바이든이 자가격리를 마친 이후의 선거전략을 짜고 있던 선거 캠프 참모들에게는 발표 1분 전야 소식만 전해졌다.

바이든이 21일 오후 1시46분 X에 올린 한 장짜리 사퇴 입장문을 미리 알았던 사람은 바이든의 최측근 스티브 리셰티 고문과 마이크 도널슨 수석전략가 등 두 명뿐이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은 사퇴 발표 전날 오후 두 사람에게 전화해 코로나 19로 격리하고 있던 델라웨어주 러호버스 해변 자택으로 호출했다. 바이든은 질 여사 등 가족들과 함께 후보 사

퇴 입장을 정한 뒤 이들에게 입장문 준비를 맡겼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과 캠프 선임들은 사퇴 입장문 게시 1분 전인 오후 1시45분 바이든 대통령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 단체통화를 한 뒤에야 사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바이든은 단체통화 시작과 함께 입장문을 X에 올렸다.

바이든의 사퇴 결심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캠프 관계자들은 발표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 여부를 묻는 언론의 문의에 “대선을 반드시 완주한다. 대안 후보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경선 완주 입장을 고수해 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48시간여 만에 사퇴로 입장을 바꾼 배경은 당내에서 잇따르는 사퇴 압박과 함께 주말 사이 새로 집계된 여론의 동향, 급격하게 줄어드는 선거자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성현=강태화 특파원

## 할리우드 스타들도 바이든에 “감사”...일부는 해리스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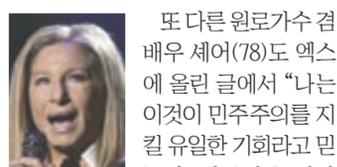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발표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할리우드 스타들도 잇달아 감사의 뜻을 표했다.

22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원로가수 겸 배우·감독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82·사진)는 전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조 바이든은 4년 임기 동안 현저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의 민주주의 수호에 감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해 할리우드 배우조합상(SAG) 평생공로상을 받은 스트라이샌드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왔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온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80)도 성명에서 “기민한 정치와 이타적인 애국심의 행동으로 조 바이든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길을 열어주려 물러났다”며 “투표소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존경과 경탄, 애정을 담아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원로가수 겸 배우 셰어(78)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킬 유일한 기회라고 믿는다. 민주당은 정말로, 정말로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기는 것이 전부이고,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젊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31)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투표를 위해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링크를 덧붙였다.

일부 유명 인사들은 민주당의 새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등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프로듀서 손다 라임스(54)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뛰어난 업적에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과거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라임스는 “나는 2016년 그녀가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 지지했고, 부통령

으로 나왔을 때도 그랬으며, 오늘도 그녀를 지지한다”라고 썼다. 라임스 역시 해리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흑인 여성이다.

드라마 ‘로스트’ 등을 연출한 감독이자 작가 데미언 린들로프(51)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햇불을 남겨주세요, 조’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바이든 대통령)는 주저 없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겨주었다”며 “부통령이 그 햇불을 받아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아주 안심이다”고 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비등해 진 상태였다.

민주당 대선 모금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지난 10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11월(대선)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클루니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한 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미서부시간)까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 703.639.0882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SCAN ME

**SMART.SOLOMONUS.COM**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비밀경호국장 “중대한 경호실패”

전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 책임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부상 사건에 대해 “지난 수십년 사이에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밝혔다.



선사하는 비밀경호국장

자진 사퇴를 거부했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났는지 조사할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사망)가 쓴 총에 귀를 맞고 부상했다.

당시 비밀경호국은 크룩스가 유세장 인근 건물의 지붕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총격 때까지 약 20분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해 경호 실패 지책을 받아왔다.

# 이스라엘 군인 위험한 캐나다인 사살

이스라엘에서 현지 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려고 한 캐나다인이 그 자리에서 사살됐다고 와이넷,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군인에 흉기 공격 시도한 캐나다인 사살 현장

경찰에 따르면 이 캐나다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가자지구 북쪽 네티브 하아사라 검문소에서 보조 군인 3명 곁에 차를 정차한 뒤 내려 영어로 “이스라엘 군이 가자에서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외치며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군인의 즉각 조치 사격에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스라엘군은 이 캐나다인이 무슬림

으로 밝혀졌고 전날 관광비자로 이스라엘에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판단하고 조사하고 있다.

# 마크롱 “센강 올림픽 개막식, 현실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 “이번 올림픽은 프랑스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2024 파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

마크롱 대통령은 연합뉴스를 비롯해 올림픽 취재에 나선 전 세계 언론인을 엘리제궁에 초청한 자리에서 이번 올림픽이 기존의 올림픽과 다른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확히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됐으며,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개막식을 치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엔 헛소리 같고 진지하지 않은 아이디어로 보였지만, 우리는 지금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센강 개막식과 수상 행진을 가능하게 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가장 처음 만난 사람 중 한명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IOC)이었다고 소개하며 그간 프랑스가 올림픽 개최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정된 시간과 예산에 맞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뤄냈다”고 자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올림픽 일부 수영 종목이 센강에서 열린다는 것도 언급하면서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프랑스인들은 센강에서 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건 올림픽이 남기는 유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 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지속 가능하고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도록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N의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선수촌도 다시 한번 방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올림픽 기간 내내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는 엄청난 노력의 결실”이라고 올림픽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이번 올림픽이 “정치적 휴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조기 총선 이후 분열된 정치권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 우크라 ‘전쟁 알리기’ 유럽 투어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군이 유럽에서 피란민을 상대로 전쟁 실상을 알리고 군생활을 소개하는 활동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제3돌격여단 장병들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란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제3돌격여단 소속 장병 4명은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오데사 클럽’에서 캠페인을 시작했다. 장병들은 독일·네덜란드·벨기에·체코·리투아니아에서도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비탈리(21)는 AFP에 “유럽에 있는 우리 국민이 유럽에서 우리의 목소리”라며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의 ‘가짜뉴스’에 대응해 전쟁의 현실을 알리고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빅토르(32)는 “투어를 통해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 비전을 전할 뿐”이라며 모병활동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행사에 참여한 200여명 가운데 일부는 귀국과 참전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에고르 마트비이엔코(22)는 2022년 6월 피란길에 올랐으나 참전하지 않은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다. 올렉산드르 체르체크(26)도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지만 두렵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깨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올 들어 병역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을 21세 이

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 충원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복무 연령대 남성들이 길거리 징집을 피하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쓰거나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루마니아 등지로 탈출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서부 르비우주 부스크의 징병사무소에 괴한이 수류탄을 투척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8일 폴란드와 양자 안보협정을 맺으면서 장병 훈련을 위한 군단을 폴란드에 창설하기로 했다. 피란민 등 유럽에 거주하는 복무 연령대 남성을 군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지난 10일 자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 수천 명이 군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로 거처를 옮긴 피란민 96만명 가운데 복무 연령대 남성은 약 30만명으로 추정된다.

# 러 원유 송유관 막은 우크라이에 반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22일 러시아산 원유가 운반되는 송유관을 막은 우크라이나의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EU)에 협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러시아 석유그룹 루크오일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뒤 지난주부터 루크오일이 수출하는 원유가 수송되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자국 내 구간을 차단했다.

이 송유관은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장 육상 파이프라인 중 하나다. 벨라루스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하나는 독일까지, 나머지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가로질러 헝가리, 슬로바키아,



러시아 유전

체코 등 동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한다. 다른 EU 회원국들은 EU 제재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부분 중단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대체 공급처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

유로 제재 이행을 면제받아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 중이다.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특히 높아 우크라이나의 송유관 중간 차단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싸야트로 장관은 루크오일에서 받는 원유량이 헝가리 전체 원유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의 독자 제재가 러시아보다 슬로바키아와 EU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며 반발했다.

두 나라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에 우호적인 정부가 집권 중이다.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언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채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 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4/화3.5/차고2, 코너집, 굿 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 7월 스페셜 SALE

Special

##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디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 김요곤 침향 녹용단

**\$430 \$199.99**

### 이경제 황제신용단

산삼, 평향근, 녹용

**대박 SALE \$430 \$159.99**

###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고집, 광동의 기술과 침향이 만나

**20% Sale**

###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쓴 여주를 먹기 좋게 환으로

당뇨, 통풍, 콜레스테롤

###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 위건강엔 마스크

FromBIO

### 캐변플러스

코팅식이섬유

###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Nutridom Collagen

캐나다산 마린콜라겐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안알라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 이름 키즈10

키 10배 키우기

이름 황성주생식

독소배출/다이어트/혈액정화

###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능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 농협 한삼인 홍삼

10% SALE

100% 홍삼즙 60포/30포

### 선삼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그린 프로폴리스

순도 100% 천연 황성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1oz \$40, 4oz \$120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 세종 승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 공짜선물이 팡 팡

향풍정 홍삼 국내최고 사포닌 8mg

풍기 홍삼액 골드

###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SP HEALTH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C. MORI

- 만성기침과 가래  
-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 기관지 도하로 인한 가래와 기침  
-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오미자만을 전통 발효로 진하게

혈액순환, 해독, 피로회복

###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유기농으로 키운 명품 수제차

불면증, 신경안정, 눈 건강, 피로회복

###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관절염 통증과 붓기에 도움

천연 성분으로 안전한 통증 크림

순도 1000 / 2000mg

### 함수면 CBD + CBN 젤리

더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수면을 촉진시키는 CBN 함유중독성 없는 천연 수면제

# 대검 “김여사 조사, 감찰 가능성”... 명품백 수사검사 반발 사표

이원석, 방문조사 진상파악 지시  
대검, 수사놓고 “사후 통보” 규정  
중앙지검장, 총장 직접 만나 사과  
명품백 의혹엔 무혐의 처분 가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보고 누락은 두 번째 ‘패싱’이다. 첫 패싱은 지난 5월 검사장 인사에서 이 총장과 협의 없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한 일이다. 이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모여 있던 30여 명의 취재진을 향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고도 했다. 대국민 사과 형식이지만 자신을 패싱하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중앙지검에 대한 공개 질책이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

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검은 이를 “사후 통보”로 규정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배우자 수사에서 총장을 패싱한 이번 사태를 놓고 “총장에게 중앙지검장이 항명했다”는 평가는 많지 않다. 오히려 법조계에선 “용산이 총장을 패싱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 “검찰청 소환조사” 원칙을 천명(6월 3일)했는데도, 용산이 김 여사의 경호·안전 우려를 이유로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사 방문 조사 사실을 보고받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 총장은 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면서도 동시에 “진상 파악” “상응하는 필요 조치” 등을 언급했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전례가 없다.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 특별하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불러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한 경위와 관련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수차례 “죄송하다”고 사과

하는 한편,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배제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고 한다. 이 총장은 대검 검찰부에 김 여사 방문 조사를 둘러싼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감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대검 관계자) 등 대검 내부 기류는 강경하다.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감찰 가능성 소식에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냈다. 두 차례의 총장 패싱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총장의 관계가 “완전한 파국을 맞았다”는 얘기가 용산과 검찰 양쪽에서 나온다. 원래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측근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총장 사이가 벌어진 건 이미 지난해부터”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총장의 ‘수사지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통령실 사람들이 생겼다고 한다. 같은 해 11월 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동영상 공개되면서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용산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왜 아직도 종결하지 않느냐”며 검찰 책임론이 나왔다. 그와 동시에 김 여사 소환 문

제는 수면 아래에 있던 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을 표면화하게 만들었다. 지난 1월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법률비서관실을 통해 김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를 타진하자 대통령실에선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다”며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에 송 지검장이 사표를 냈고, 이를 막기 위해 이 총장도 사표를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때는 중앙지검장 원포인트 인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양측 갈등이 무마됐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지난 5월 2일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자 용산도 같은 달 12일 검찰 인사로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수사 지휘부를 전원 교체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방문 조사를 끝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명품백 수수가 최재영 목사 등의 합성 취재로 기획된 것이어서 청탁 금지법상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과 청탁의 존재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총장이 감찰부 진상 조사 결과에서 김 여사 방문

조사 등 수사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남은 상황이다. 이 총장이 이날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정진우 기자



이창수



이원석

## 검찰서도 “김여사 4년만에 첫 대면조사인데, 특혜시비 자초” 비판

“다른 정치인도 요구하면 뭐라 하나”  
검찰, 두달간 고민했지만 난관 넘겨  
민주당 “특혜이자 황제조사” 맹공

설은 의미가 남다르다”(수도권 고검 검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고발 4년 만에 첫 대면조사인데 특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정치인이 ‘나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나”(검찰 간부) 등 당혹감과 비판이 교차했다. 장소는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19일 밤늦게 제안했고 검찰이 수용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이 검찰청 출석을 거부한 표면상 이유는 “경호와 안전”이다. 하지만 김 여사 변호인의 기존 입장을 감안하면 검찰청 포도라인에 서서 유죄 추정 인상을 심어줄 수 없다는 내부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혜이자 황제조

사” “김 여사 혼자 방문한 한밤의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현장보다 검찰청이 위험한 곳이나”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지만 (검찰이 밝힌) ‘관할 정부 보안청사’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성운 의원) 등 비판을 높였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받은 것을 특혜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비판을 일축했다. 검찰은 두 달여간 ▶검찰청 소환조사 ▶용산 방문조사 ▶제3의 장소 출장조사 ▶서면조사 등을 놓고 고민했다. 이 기간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간 온도차가 컸다. 이원석 검찰총장 등 대검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등) 특검 때의 꼬리곰탕 조사처럼 부실수

사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환조사해야 한다”(대검 고위 관계자)는 원칙론을 유지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이 “중앙지검이 잘 협의하라”고 전권을 부여해 대검으로선 윤석의 폭이 좁았다. 반면에 중앙지검 수사팀 의견은 미묘하게 바뀌었다. 지난달 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명품백 수수는 (김 여사) 소환이 부담된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후 “소환만 고집하다 조사가 무산되니 방문조사가 낫다”(이달 초)를 거쳐 “조사 방식과 시기는 영부인·대통령실과 조율할 영역”(이달 중순)이 됐다. 김정민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한 곳으로 알려진 청와대 앞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뉴스1]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  |   |  |
|--|--|---|--|
| <p><b>비엔나 타운홈</b><br/>방3+와3+차고2<br/>2001년, 2100sf<br/>젤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br/>도로로 5분거리</p> <p><b>\$970,000</b></p> | <p><b>페어팩스</b></p> <p>타운홈 방3+와3, 차고1 <b>\$70만불대</b><br/>타운홈 방3+와3, 차고2 <b>\$80~\$85만불대</b></p> | <p><b>임대</b></p> <p>조지메이슨 대학부근<br/>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br/>임대: 여학생 환영</p> | <p><b>센터빌</b></p> <p>타운홈 방3+와3, 차고1 <b>\$45만불~\$60만불</b><br/>타운홈 방3+와3, 차고1 <b>\$60만불대</b><br/>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b>\$630,000</b></p> |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킬 것입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   |  |
|---|---|--|
| <p><b>DC LAW GROUP</b><br/>LEGAL COUNSELORS</p> <p>VA <b>571.999.2755</b><br/>4326 Evergreen Ln. #C<br/>Annandale, VA 22003</p> | <p><b>MD</b> <b>301.775.2774</b><br/>630 E. Diamond Ave, Suite F<br/>Gaithersburg, MD 20877</p> | <p>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p> <p>Hours: Mon-Fri (10:00 ~ 18:00)<br/>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p> |
|---|---|--|

# 여당 전대 막판 변수된 '공소 취소' 논란... 신·구 갈등 커졌다

(초·재선) (중진)

**국민의힘, 오늘 당 대표 선출**  
패스트트랙 사건 연루 의원들 모임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참석세 과시  
한측 "비대위원장때 가장 많이 쟁쟁" 중진, 초·재선 가세 당내 확산 예상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시작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막판에는 5년 전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넥스트(next) 보수의 진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만큼 전당대회가 과거를 둘러싼 공방만 부각되고 있다.  
전당대회 하루 전인 22일에도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

고 (법무장관인 내게) 부탁하지 않았나"(17일 TV 토론회)라고 한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식당에는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여당 전·현직 의원 10여 명이 모였다. 이만희 의원과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민경욱·윤상직·정태욱 전 의원이 참석했고, 나 후보, 원희룡·윤상현 후보도 식당을 찾았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식사 도중 한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한 후보가 당사자가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폭주에 몸을 던져 기소당한 희생, 자부심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재판 동지끼리 속상해서 밥 한 끼 먹기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비한계의 실행사이자 결선투표를 겨냥한 연대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후보 측 정광재 캠프 대변인은 "여야의 (공소취소) 합의가 안 돼서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하기 어려웠다"며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난 1월 패스트트랙 관련해 고생하는 변호인들 지원하려고 간담회도 주재했다"(CBS 라디오)고 맞섰다. 이날 대응은 전날(21일) 밤 캠프 단체 대화방에서 "사과할 것과 사과하지 말 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등의 지적이 쏟아지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는 "대화방에는 한 후보도 속해 있었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선 "패스트트랙 사태가 향후 친한계와 비한계의 전면전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사태를 직접 겪은 비한계 중진과, 신진 세력으로 부상한 친한계 초·재선 의원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골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중진 의원은 "친한계 의원 중 당시 스크럼을 짜고 농성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친한계 초선 의원은 "경험 못 했으니 입을 닫으라는 얘기야말로 편 가르기"라고 했다.  
한편 22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전당대회 당일 최종 투표율은 48.51%로 집

계됐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55.1%)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 후보 측은 "지지를 격차 때문에 언더독(열세 후보)을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다"(정광재 대변인)는 입장이다. 원 후보는 "(한동훈) 팬덤 현상이 당원 표와 거리가 있다는 결과"라고 해석했고, 나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바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고양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선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이 선출된다. 대표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간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순국화·김민정·이창훈 기자

## 환노위,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야당 "25일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1대서 폐기  
거야, 노동계에 더 유리하게 법 제정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동시 추진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2일 여당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 약 20분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이러한 법안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전조정을까지 거쳤지만, 안전 조정도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논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많이 제출됐다"며 "이미 늦은 만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소속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측 전원(10명)이 찬성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사업장 잡거 등 불법 쟁의행위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주요 경제단체 측은 "산업생태계 붕괴 및 노사분규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막힌 노

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고, 재의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이전보다 노동자 측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루 앞서 24일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 회부해 두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정재 기자**



인사청문회 '수퍼워크' 국회가 22일부터 인사청문회 '수퍼워크'에 돌입했다.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왼쪽)를 시작으로 노경필 대법관(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렸다. 24·2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연합뉴스·뉴스1]

## 부산항 거처가는 마약 싹 잡아낸다

지난 4월 부산신항에 정박한 미국발 화물선 냉동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33kg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 미국 마약단속국(DEA) 수사 결과 이 코카인은 마약 밀수범이 중남미를 거쳐 모로코 탕헤르항에서 회수하려 했으나 놓친 물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부산신항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선에서 100kg에 이르는 코카인이 발견됐다. 시가 3500억원으로 부산시민(330만명) 전체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사건을 수사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남미 마약 밀매조직이 선박 아래 씨체스트(sea chest)에 마약을 숨기는 '기생충' 수법을 사용해 코카인을 다른 나라로 실어 옮기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처럼 부산항 정박 선박에서 적발된 코카인·필로폰 등 마약류는 941kg에 이른다.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공표한 마약 밀매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적발된 마약류 양

은 더 많다고 부산세관은 밝혔다. 부산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옮기려던 것은 물론 국내 유통 목적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광호 관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부산항을 찾아 "마약 등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항이 마약의 경유지 혹은 관문으로 악용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부산세관은 22일부터 우범 화물 검사 전담부서를 가동한다. 화물 종류와 발·수신처, 경유국 등 이력을 따져 마약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우범 화물'을 가려낸다. 정밀검사 전담 인원 28명은 이런 우범 화물에 대해 엑스레이(X-ray)와 이온스캐너 등을 이용해 선박에 숨겨진 마약을 판독해내는 역할을 한다. 마약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확인되면 세관이 자체 수사하는 한편 검찰·해경 등 관계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전담 부서는 마약류를 사전에 발견해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 명당 차지한 '알박기' 캠핑카, 뺄 때까지 과태료 물린다

지난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해안도로. 마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귀산 카페거리'로 알려진 이곳에는 연중 많은 사람이 찾는다. 하지만 이 도로변에 잠시 차를 세우고 바다 풍경을 즐기는 게 쉽지 않다. 시민 누구나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갖길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지만, 캠핑카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알박기 캠핑카·카라반'이다.  
특히 마창대교가 보이는 '명당' 자리를 차 한 대 들어갈 빈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곳 840m 구간(귀곡동 560-11부터 귀곡동 754) 도로변을 따라 주차된 캠핑카와 카라반 트레일



경남 창원시 한 해안도로변에 캠핑카·카라반 수십대가 장기간 주차돼 있다. **안대훈 기자**

이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한 번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지자체 단속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또 다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며 "주정차 금지구역은 표지판·도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중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시간대 상관없이 주차할 수 있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시간대는 주정차가 불가능해 장기 주차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대훈 기자**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원장/ Benjamin Chun, MD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올린다

“이재명 헬기이송, 공무원은 강령위반  
국회의원은 적용대상 아니다” 종결  
야당 “김건희 명품백 사건 몰타기”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시행

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2016년 법이 만들어진 뒤 8년 만이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외에 상한이 10만원인 화환과 조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상한선이 15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안건에 올렸지만,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도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기간엔 15만원이 최대 한도다. 소상공인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에 식사비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식사비 3만원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21년 전 기준이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식사비 한도 상향을 추진해왔지만, 부정적 여론에 총선과도 맞물리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져 왔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응급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선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야당 대표(이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

의원(전준호 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의료진·소방 직원 등의 응급치료를 유죄라고 말하는 건 “24일 정무위 업무 보고를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몰타기용”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야당 추천 위원 2명도 권익위 조사 등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기권 의사를 밝혔다. **허진·박태인 기자**

## 수도권 오늘도 출근길 '시간당 70mm' 물폭탄... 태풍급 바람도 주의

경기 북부 150mm 넘는 폭우 예상  
서해안 내일까지 지속 55km 강풍  
경주 37도 등 남부는 폭염 비상



**심술궂은 날씨** 서울에 돌풍을 동반한 장맛비가 내린 22일 오전 세종대로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에 23일 오전 시간당 최대 70mm에 이르는 물벼락 수준의 폭우가 또 쏟아질 전망이다. 비와 함께 거센 돌풍까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남부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3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최근 기록적인 비가 내렸던 경기 북부에 또다시 시간당 50~70mm의 폭우가 집

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등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도 23일 오전까지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지역에도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23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0~120mm이며, 경기 북부는 150mm 이상을 기록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다. 강원도는 30~80mm, 강원 북부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 새벽 기준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앞서 22일에도 서해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부 지방에 천둥·번개와 함께 기습 폭우가 쏟아졌다. 경기 동두천시 상해동에는 1시간 만에 40mm의 비가 내렸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분다. 기상청은 “24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비가 잦아든 남부 지방에서는 폭염이 기승

을 부렸다. 절기 증가장 담다는 ‘대서’인 22일 경북 경주시 갑포읍은 체감온도가 37.2도까지 치솟았고, 전남 구례군과 제주 시 구좌읍은 각각 35.9도, 35.5도를 기록했다. 이에 남부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광주와 대구 등에는 폭염경보가 발표됐다. 23일 이후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절정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제3호 태풍 ‘개미’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이다. 태풍은 24일 매우 강한 세력으로 성장한 뒤 25~26일 사이에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개미의 진로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장마의 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천원필 기자**

## 이번엔 경호원에 맞아 10대 팬 뇌진탕...소속사 “깊이 사과”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룹 크래비티(CRAVITY) 팬이 공항에서 경호원에게 폭행당했다며 경호원을 고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사과했다.

크래비티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오후 크래비티 공식 팬 카페에 ‘공항 경호 관련 안내’를 올려 “지난 6월 23일 크래비티의 일본 공연 및 프로모션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아티스트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호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불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피해를 보신 분들 및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당시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경호 업체와의 크래비티 현장 경호 관련 협력 관계를 종료했다. 더불어 향후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는 모습. **[사진 엑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호 프로토콜 및 교육 절차를 마련하여 팬 여러분과 아티스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JTBC ‘뉴스룸’은 그룹 크래비티의 10대 팬이 사실 경호원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JTBC가 입수한 영상에서 멤버들을 찍던 10대 팬 A씨에게 경호원 B씨는 “당

신 나안 밀었어?”라고 물었고, 안 밀었다는 A씨의 대답에도 “정신병자 아니야?”라고 폭언했다. A씨는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서 가벼운 뇌진탕 후 후후군으로 사료된다”라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경호원의 손에 강하게 밀려진 팬들은 A씨 외에도 한둘이 아닌 것으로도 전해진다. B씨는 JTBC에 “A씨 손을 위쪽으로 올렸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공항에서 빛어진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2일 변우석이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SUMMER LETTER)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경호원이라운지 승객을 상대로 항공권을 검사하고 플래시를 쏘거나, 무단으로 공항 게이트를 통제해 정황

이 포착돼 ‘공항 사유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논란이 일었다. 경호업체 측은 “(혼잡했기 때문에) 공항 경비대와 차단한 것”이라면서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엔 그룹 NCT드림 경호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0대 여성 팬을 밀쳐 누를 골절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룹 보이넥스트도어 경호원도 활영 중인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려 소속사 측에서 사과했다. &TEAM(엔팀)의 팬 사인회에서 보안 요원이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신체 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지혜 기자**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http://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뱅크)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대표 정희수**  
703.477.3114

부동산 최고의 권위!

#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Principle Broker 세은**  
703.244.6526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 ★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 ★ 주택 매매(주거용, 투자용)
- ★ 상업용 부동산 매매
- ★ 법원 경매(Auction)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 ‘아침이슬’로 시대 적시고 ... 대학로 ‘뒷것’ 되어 꿈 심었다

(배우·가수 뒤에 선 사람)

**‘학전’ 이끈 김민기 별세**

아침이슬·상록수 등 술한 명곡 남겨  
1984년 ‘노찾사’ 결성해 음반 발매  
“내 노래가 위로가 됐다던 영광일 뿐”

1991년엔 대학로에 ‘학전’ 설립  
김광석·설경구·나윤선 등 배출  
“학전, 난 할 만큼 다했다” 말 남겨



1 위암으로 투병하다 21일 세상을 떠난 김민기 ‘학전’ 대표. 동료들은 그를 “순수하고 맑은 웃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했다.



2 지난 3월 학전의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 회차 모습. 3 1971년 발매된 김민기의 유일한 정규 앨범 ‘아침이슬’이 수록돼 있다.

그의 노래는 울분으로 가득한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연료가 됐다. 본인은 스스로를 ‘뒷것’이라 부르며 드러남을 원치 않았지만, 노래는 제 운명대로 세상의 슬픔과 공명하며 널리 퍼져나갔다.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아침이슬’)고 노래했던 음유시인, 싱어송라이터이자 소극장 학전 대표였던 김민기가 위암 투병 끝에 21일 별세했다. 73세.

김민기의 조카이자 학전 총무팀장인 김성민씨는 22일 서울 대학로 학립다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땀에서 요양 중이던 선생님의 건강이 19일부터 안 좋아졌고 20일 오전 응급실을 찾았다”며 “병원에 갔을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날 오후 8시26분에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럽게 떠나셨지만 3~4개월 전부터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며 “학전과 관련해선 ‘지금 끝내는 게 맞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아침이슬’ ‘상록수’ 등 술한 명곡을 남긴 고인은 1991년 대학로에 학전을 설립하고 수많은 신인 배우와 작가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가수 고(故) 김광석, 고(故) 유재하 등이 이곳에서 공연했고, 배우 설경구·김윤석·황정민·조승우·장현성·이정은과 재즈 뮤지션 나윤선 등이 고인이 제작한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무대를 거쳐갔다.

김민기는 1951년 전북 익산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한국전쟁 후엔 서울로 이주해 재동초, 경기중·고교를 다녔다. 학창 시절엔 기타를 치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과 미술에 몰두했다. 1968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한 후에도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동창생인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와 듀엣 ‘노비두’를 결성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음악가로서 고인의 삶은 외압에 맞

선 저항의 역사였다. 1970년 가수 양희은을 만나면서 시대를 바꾼 노래 ‘아침이슬’이 탄생한다. 1971년 발매한 그의 앨범에도 수록한 ‘아침이슬’은 아름다운 노랫말로 ‘건전가요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지만, 1975년 금지곡으로 묶였다.

‘아침이슬’을 비롯해 ‘꽃 피우는 아이’ ‘늙은 군인의 노래’ ‘상록수’ 등 고인이 쓴 노래 대부분은 ‘운동권 가요’로 불리며 금지곡으로 지정됐다.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해금됐다. 금지곡 시절엔 불온한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경찰·검찰·보안사·안기부 등에 연행돼 술한 고초를 겪었다. 1984년에는 민중가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을 결성해 프로젝트 음반을 발매했다. ‘노찾사’ 출신의 포크 가수 권진원은 “신기하게도 김민기 선생님이 쓴 노래엔 사람이란 가사가 없다. 노랫말엔 없지만 그 누구보다도 세상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대의 상징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1998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운동을 염두하고 만든 노래는 하나도 없다”며 “수용자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다. 내 노래가 그들에게 공명돼 그들을 위로했다면 다만 영광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의 예술세계를 지향한 또 하나의 뿌리는 무대였다. 고인은 1978년 노래극 ‘공장의 불빛’을 시작으로 1983년

‘멈춰선 저 상어는 상수도 없다디냐’ 등을 연출했다. 소극장 학전에서 1994년 초연한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2023년까지 8000회 이상 공연을 올리며 7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학전은 지난 3월 만성적인 재정난과 그의 건강 문제 등으로 33년 만에 폐업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 수많은 명작을 만들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배우와 가수 뒤에 선 ‘뒷것’이라 칭했다. 학전 폐업 때 1억원 이상을 기부한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평소 주변인들에게 김민기를 “조용하며 나서지 않고, 나서야 할 때는 묵묵히 책임만 감수하는 순수하고 맑은 시인”이라고 말해왔다. 고인의 서울대 후배이기도 한 이수만은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는 등 고인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다.

22일 고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의 추모 메시지가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송동학립다방에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열정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고 회고하며 “역사는 선생님을 예술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지닌 영원한 청년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는 빈소를 찾아 “고인이 문화예술을 고집하며 이룩한 것들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됐다”고 말했다.

유족은 부인 이미영씨와 2남. 발인은 24일 오전 8시다. 이영희·황지영 기자

## “불닭면 매워도 위험하진 않다” 덴마크 리콜철회 이끈 K특공대

**식약처, 덴마크에 대표단 즉시 파견**  
“매운 소스 그릇 묻어 섭취량 적다”  
캡사이신 분석, 과학적 근거로 설득  
3개 제품 중 2개, 한달만 리콜 철회

너무 맵다는 이유로 덴마크에서 회수(리콜)된 K푸드가 있다. 바로 ‘불닭볶음면’이다. 그런데 이 제품이 불과 한 달 만에 판매 재개로 부활했다. 그 비결은 냄비그릇에 남아 있는 소스였다. 한국 정부가 조리·식사 과정에서 매운맛이 줄어든다는 점을 파고들면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덴마크 측 빚장을 푼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한국산 불닭볶음면 3개 제품에 대한 회수 결정을 내렸다. 캡사이신(매운맛을 내는 성분) 함량이 높아 이를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위해평가보고서엔 ‘매운맛 첼린지’ 용도로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세계적 인기를 끄는 불닭볶음면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국가는 덴마크가 처음이었다.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국 정부가 제조사인 삼양식품과 함께 빠르게 움직였다. 식약처는 우선 덴마크 정부에 K푸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덴마크 정부를 설득할 과학적 근거도 필요했다. 특히 지난해 독일 청소년들이 매운맛 첼린지에 나섰다가 복부 통증·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매운 감자 칩’과의 차이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덴마크 정부가 주로 매운 감자 칩을 기준으로 불닭볶음면 위해성을 평가해왔다.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한국식품과학연구원은 분석을 거쳐 소비자가 불닭볶음면의 매운 소스를 전부 먹지 않는 걸 확인했다. 조리 과정에서 소스 봉지와 냄비에 소스가 남고, 먹을 때는 그릇에 묻는 만큼 실제로 섭취하는 캡사이신 함량이 낮아진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이달 초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대표단을 파견해 이러한 분석 자료를 넘겼다. 덴마크 측은 불닭볶음면의 인체 위해 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3개 제품 중 2개(불닭볶음면 2X 스파이스·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봤다. 회수 조치를 철회하면서 지난 12일부터 이들 제품의 덴마크 내 판매도 재개됐다.

오영진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덴마크가 내린 판단이 다른 유럽국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



22일 정부·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한국산 불닭볶음면 3개 제품에 대한 회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불닭 브랜드 해외 프로모션. [연합뉴스]

대표적이다. 식품첨가물인 금박은 순도 95% 이상 금을 종이처럼 얇게 눌러 만든 것으로, 술·잼·디저트 등에 사용된다. 당초 국내 A 업체가 베트남으로의 금박 수출·유통을 희망했지만, 규제 장벽에 막혔다. 베트남에선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아 음식에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식약처·주베트남 대사관 등이 나서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들 기관은 국내 식품첨가물 체계와 금박 안전성 등을 베트남 당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후 수입을 승인했다. 식용 금박의 베트남 수출 기대효과는 연간 10만개로, 금액 기준 100만 달러(약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영진 과장은 “앞으로도 국제 협력과 적극적인 규제 외교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면서 K푸드 글로벌 진출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중훈 기자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대표번호: 888-756-7549**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쇼핑센터 | DC 건물 | 리스팅하실 건물주 분들!

# Looking "FORE" the Landlord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형태로 쇼핑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703.395.3123**

우리말 바꾸기

그리고 나서

“발에 사마귀가 생겨서 수술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쯤 지났는데 수술 부위가 간지러워요.” “그리고 나서”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와 ‘나서’라는 두 단어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는 단어와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부사이고 ‘나서’는 ‘보조동사’인 ‘나다’에서 활용한 것이다.

본동사와 연결되어 그 풀이를 보조하는 것이 보조동사이므로 이 ‘나다’ 앞에는 동사가 와야 한다. 예를 들어 ‘점심을 먹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일기를 쓰고 나서’ 등의 사례를 보면 ‘나서’ 앞에 ‘먹다’ ‘하다’ ‘쓰다’ 등의 동사가 온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그리고’가 ‘고로’ 끝나기 때문에 구성상 ‘그리고 나서’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는 동사가 아니라 접속부사이므로 ‘나서’ 앞에 쓸 자격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 ‘그러다’란 단어가 있다. 이것은 ‘그리하다’의 준말인데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렇게 되게 하다’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다’는 동사이므로 ‘나서’의 앞에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발에 사마귀가 생겨서 수술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일쯤 지났는데 수술 부위가 간지러워요”로 바꾸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한인 대통령 후보, 꿈은 이루어진다



장연화  
LA 중앙일보  
사회부 부국장

이 어려 최연소 후보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진딜 전 주지사 역시 하버드 의대, 예일대 로스쿨에 동시 합격하고서도 로즈 장학금을 받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학해 23세에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다. 이후 매켄지&컴퍼니에 입사했다가 정계로 발을 들여 24세에 루이지애나 주 보건부 장관, 30살에 연방 보건부 차관보를 맡으며 젊은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다.

이처럼 화려한 경력 덕에 그는 2009년 첫 인도계 주지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는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지지율이 1%도 못 미쳐 결국 중도 사퇴했다. 하지만 그의 대선 도전으로 미국 유권자들은 이제 ‘인도계 대선 주자’가 전혀 낯설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민주당에도 많은 인도계 정치인이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날 경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인도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또 연방 하원의원에는 로 칸나, 아미 베라의

원이 있다. 둘 다 캘리포니아 출신이다. 워싱턴 주에는 프라밀라 자야팔, 일리노이 주에는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미시건 주에는 슈리 타네 다르 의원이 인도계 정치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인도계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감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커뮤니티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도계 커뮤니티는 정치인으로 출마하는 후보를 위해 뚝뚝 뭉친다. 이민자 출신인데도 인도계 주지사가 여럿 배출된 이유”라며 “정치인 배출을 위해 커뮤니티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의 아내가 인도계로 알려지면서 주류 언론들은 그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녀 역시 인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예일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케임브리지대에서 장학생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이 엘리트 여성은 존 로버츠 주니어 연방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 등을 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인 사회는 11월 선거에서 앤디 김 후보의 연방 상원 입성 여부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금 모금 활동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인도계 커뮤니티처럼 곧 한인 주지사, 대통령 도전자도 나왔으면 좋겠다. 꿈은 이루어진다.

J네트웍

공화당의 슬로건 된 ‘파이트’... 폭력이 답 될 순 없다

“탕 탕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연이어 울린 총성이 지난 13일 평화로운 주말 늦은 오후를 즐기던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놨다. 트럼프 오른쪽 귀에서 뺨을 타고 흐르는 붉은 피가 선연했다. 그런 트럼프가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보이며 “싸우자(Fight-파이트)”고 외치는 장면은 사람들 뇌리에 깊게 각인됐다.

이틀 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장. 당 대의원·당원들과 강성 보수 ‘마가(MAGA)’ 세력 사이에 ‘파이트’는 트럼피즘을 확인하고 상징하는 최대 슬로건이다. 전당대회 첫날 저녁 오른쪽 귀에 흰색 거즈를 붙인 트럼프가 나타나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모두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다. 트럼프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파이트” “파이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트럼프 머느리 나라 트럼프 등의 찬조연설 중간중간에도 지지자들은 “파이트”를 연호하며 하나가



김형구  
워싱턴총국장

됐다.

이번 피격 사건은 혐오와 분노의 감정을 자극해 여기까지 온 트럼프가 역설적으로 정치 양극화의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피격 이후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는 트럼프가 ‘미국의 단결’을 역설하며 ‘통합 전도사’를 자처하는 지금, 지지자들은 오히려 적을 깨부수는 ‘성전(聖戰)’을 다짐하며 투지를 불사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당대회 현장에서 만난 한 대의원은 “신의 가호가 트럼프를 살렸다. 이제 그가 미국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치 폭력화’를 푸는 해법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는 없다. 2020년 대선에 불복한 트럼프 추종자들이 벌인 1·6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을 떠올려 보면 11월 대선을 전후해 더욱 진화한 형태의 정치 폭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로 단순히 갈라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증오의 정치’ ‘분노의 정치’와 결합해 극단적 테러로 표출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상대 혐오와 악마화가 일상이 된 한국의 정치 현실도 돌아보게 된다. 송영길·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흥기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정치 양극화를 조장하고 전리품만 챙기려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극단적 대결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의 온상일 뿐이다.

맛있는 용자의 달인

#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s://www.facebook.com/LandBUiversal)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http://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7월의 추천투어**

# 서유럽

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독일-스위스-이태리

12박13일  
9/20~10/2  
**\$3,890** +항공

유럽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런던, 파리, 로마, 베니스 등의 기본적인 서유럽 일정. 더불어 벨기에의 브뤼셀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까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4 크루즈**

Royal Caribbean Vision of the Seas

**알래스카**  
7박 8일 8/30~9/6  
**\$1990**~부터 (인사이드, 항공포함)

**남부 카리브해**  
12박13일 12/7~12/19  
**\$1390** (인사이드)

##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                    |  |
|--------------------|--|
| 8/09~8/19 10박11일   | 북유럽 4개국 5290+항공  |
| 8/14~8/19 5박 6일    |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b>대장</b> \$2290(항공포함)                           |
| 8/15~8/21 6박 7일    | 알래스카 일주 <b>대장</b> \$2990(항공포함)                                 |
| 8/30~9/06 7박 8일    | 알래스카 크루즈 <b>대장</b> 인사이드 \$1990~부터(항공포함)<br>발코니 \$2590~부터(항공포함) |
| 8/30~9/02 3박 4일    |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1290+항공  |
| 9/02~9/13 11박12일   | 영국일주 \$5890+항공   |
| 9/10~9/20 10박11일   | 정통 서유럽 <b>대장</b> \$3490+항공                                     |
| 9/18~9/26 8박 9일    | 정통 동유럽 \$3290+항공   |
| 9/18~10/1 13박14일   |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4390+항공   |
| 9/20~10/2 12박13일   | 파노라마 서유럽 \$3890+항공   |
| 9/23~10/2 10박11일   | 정통 서유럽 <b>대장</b> \$3490+항공                                     |
| 9/24~10/4 10박11일   | 고품격 고국일주 3차 <b>대장</b> \$2990+항공                                |
| 9/25~10/1 6박 7일    | 크로아티아 발칸 \$2890+항공   |
| 9/25~10/5 10박11일   | 그리스&튀르키예 \$2890+항공   |
| 10/03~10/16 13박14일 | 독일 일주 \$5690+항공  |
| 10/08~10/18 10박11일 | 스페인&포르투갈 <b>대장</b> \$3190+항공                                   |
| 10/09~10/19 10박11일 | 정통 서유럽 <b>대장</b> \$3490+항공                                     |
| 10/14~10/25 11박12일 | 호주&뉴질랜드 \$3790+항공  |
| 10/15~10/25 10박11일 | 고품격 고국일주 4차 <b>대장</b> \$2990+항공                                |
| 10/17~10/30 13박14일 | 프랑스 일주 \$5690+항공   |
| 10/22~10/31 8박 9일  |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역) \$1990+항공                                  |
| 10/22~11/01 10박11일 | 고품격 고국일주 5차(대장) <b>대장</b> \$2990+항공                            |
| 10/29~11/08 10박11일 | 산티아고 순례 \$3590+항공  |
| 10/29~11/08 10박11일 | 고품격 고국일주 6차 \$2990+항공  |
| 11/27~12/01 4박 5일  |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90+항공                                       |
| 12/07~12/19 12박13일 |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390(인사이드)  |
| 12/23~12/28 5박 6일  |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2390+항공                                       |
| 12/23~12/29 6박 7일  |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2390+항공                                      |

|   |  |   |   |   |  |
|---|--|---|---|---|--|
| <p><b>8월 캐나다 록키</b></p> <p>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캐나다!! 투명한 호수와 빙하로 둘러싸인 거대한 록키산맥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p> <p>8/14~8/19 <b>대장</b> \$2,290 (항공포함)<br/>5박 6일 (여름방학 특선)</p> | <p><b>8월 알래스카 일주</b></p> <p>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대빙하, 엑시트 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p> <p>8/15~8/21 \$2,990 (항공포함)<br/>6박 7일</p> | <p><b>9월 영국 일주</b></p> <p>위대한 제국의 영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잉글랜드&amp;스코틀랜드&amp;아일랜드</p> <p>9/2~9/13 \$5,890 +항공<br/>11박12일</p> | <p><b>9월 정통 서유럽</b></p> <p>서유럽의 핵심 도시들을 한번에!</p> <p>9/10~9/20 <b>대장</b><br/>9/23~10/2 <b>대장</b> \$3,490 +항공<br/>10/9~10/19 <b>대장</b><br/>10박11일</p> | <p><b>9월 정통 동유럽</b></p> <p>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p> <p>9/18~9/26 \$3,290 +항공<br/>8박 9일</p> | <p><b>9월 동유럽 &amp; 크로아티아 발칸</b></p> <p>9/18~10/1 \$4,390 +항공<br/>13박14일</p>  |
| <p><b>9월 그리스 &amp; 튀르키예</b></p> <p>*산토리니 옵션</p> <p>9/25~10/5 \$2,890 +항공<br/>10박11일</p>   | <p><b>9월 크로아티아 발칸</b></p> <p>9/25~10/1 \$2,890 +항공<br/>6박 7일</p>   | <p><b>10월 스페인 &amp; 포르투갈</b></p> <p>10/8~10/18 \$3,190 +항공<br/>10박11일</p>   | <p><b>10월 프랑스 일주</b></p> <p>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p> <p>10/17~10/30 \$5,690 +항공<br/>13박14일</p>   | <p><b>11월 코스타리카</b></p> <p>전 국토가 국립공원, 중남미의 푸른 유토피아 생태관광</p> <p>11/27~12/1 \$1,190 +항공<br/>(추수감사절 특선)<br/>4박 5일</p>                       | <p><b>12월 이태리 일주</b></p> <p>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p> <p>12/23~12/29 \$2,390 +항공<br/>(크리스마스 특선)<br/>6박 7일</p> |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3차 9/24~10/4 **대장**  
4차 10/15~10/25 **대장**  
5차 10/22~11/1(단풍특) **대장**  
6차 10/29~11/8

서울/부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카 \$999+항공

3박4일 사막/미타야 \$590+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약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업개발/서울대병원/가천대검정

|   |   |   |
|---|---|---|
| <p><b>성극 다니엘</b></p> <p>+아미쉬마켓 당일</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199</p> <p>8/1, 9/19, 9/14<br/>10/17, 12/12</p>  | <p><b>동부관광</b>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p> <p>미동부 버스 여행</p> <h2 style="text-align: center;">뉴욕·천심 나이아가라</h2> <p>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p> <p>매주 월요일 3박 4일 \$899</p> <p>대행버스 출발: 10/14</p> | <p><b>서부관광</b></p> <p>탑여행사의 자랑</p> <h2 style="text-align: center;">미서부 일주</h2> <p>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p> <p>8박 9일 \$1450+항공</p> |
| <p><b>단풍관광</b></p> <h2 style="text-align: center;">퀵버랜드 기차여행</h2> <p>당일투어 \$159 <b>단체여행 환영</b></p> <p>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br/>10/25(금), 26(토), 11/2(토)</p>  | <p><b>뉴욕 나이아가라</b></p> <p>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p> <p>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p> <p>대행버스 출발: 8/5, 9/23</p>  | <p><b>뉴욕</b> 1박 2일 \$399</p> <p><b>탑여행사 당일관광</b></p> <p>워싱턴디씨 \$100<br/>루레이동굴 \$125<br/>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p>               |
| <p><b>서부 4대 캐년</b> 5박 6일 \$990+항공 <b>일출발</b></p> <p><b>5대 캐년+세도나</b> 6박 7일 \$1300+항공 <b>일출발</b></p> <p><b>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b> 5박 6일 \$990+항공 <b>일출발</b></p> <p><b>알래스카</b> 6박 7일 \$1550+항공 <b>일출발</b></p> <p><b>옐로스톤</b> 3박 4일 \$930+항공 <b>일출발</b></p> <p><b>캐나다 록키</b> 4박 5일 \$1190+항공</p> |   |   |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 교육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Tuesday, July 23, 2024 C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학부모 책임지는 연방 학비 대출

**학자금 융자 PLUS 론**  
중산층 가정에 학자금 포트폴리오 중 학생 이름이 아닌 부모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이 바로 플러스(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s) 론이다. 대부분의 학자금 융자나 그랜트 등이 학생 자신이름으로 진행되는 것과 다르다. PLUS의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자.

조건-이율 안좋아도 대출 쉬운편 **▶조건도 좋지 않다**  
미국 대학의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무료 학자금인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펠그랜트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학생을 위한 캘그랜트, 학교 자체 그랜트까지 다양하다. 융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연방 정부 융자도 그중 한가지다. 이런 포트폴리오 중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PLUS 론이다.

PLUS 론은 명칭이 Parents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s 이다. 즉, 학부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비를 위하여 부모가 받는 융자다. 자녀들이 받는 융자는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에 대한 관리도 학생들이 하게 된다. 하지만 PLUS론은 이름 자체에서 뜻하듯이 부모 명의로 받는 융자이므로 부모가 관리해야 한다.

**▶이자율이 결코 낮지 않다**  
부모가 받는 PLUS론은 자녀가 받는 학자금 융자와 달리 좋은 이자율이 아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교육을 위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에 특별한 융자 조건과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지만, 부모가 받는 PLUS론에는 이런 좋은 조건을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PLUS론의 이자율은 9.08%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 이전 대출)이며, 고정 이자율이고 이의 대출 수수료가 있다.

**▶이자율이 결코 낮지 않다**  
부모가 받는 PLUS론은 자녀가 받는 학자금 융자와 달리 좋은 이자율이 아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교육을 위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에 특별한 융자 조건과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지만, 부모가 받는 PLUS론에는 이런 좋은 조건을 제공되지 않는다.  
현재 PLUS론의 이자율은 9.08%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 이전 대출)이며, 고정 이자율이고 이의 대출 수수료가 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Aid가 주어지고 모자라는 금액중 얼마를 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정해지면 론 신청하는 것은 오히려 의외로 매우 쉽고 간단하다. 웹사이트(www.studentloans.gov)다. PLUS론을 받을 부모의 FSA ID와 Password를 만들고 난 후 이 사이트에서 모든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학교명을 명확히 한 후, 빌리고자 하는 금액을 기입한다. 그렇게 하면 부모의 크레딧 레코드(Credit Record)를 확인하여 1분도 되지 않아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론을 받기 위한 크레딧점수는 높을 필요는 없으나 아주 치명적인 것이 없어야 한다. 승인되면 론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약약서(Master Promissory Note)를 작성해야 한다.

**▶융자금은 학교로 바로 입금 된다**  
PLUS론을 하면 융자금은 바로 학교로 입금된다. 또한 바로 전체 금액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입금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학자금을 위하여 PLUS 론으로 1만5000달러를 당해 학년에 빌리기로 하고 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학기제를 운용하고 있는 학교에는 각 학기 별로 7500달러를 학교의 자녀 계좌로 입금이 이뤄진다.  
하지만, 쿠퍼제를 운용하고 있는 UC와 같은 학교에는 5000달러 씩 쿠퍼에 맞춰 입금된다.

**▶융자금은 학교로 바로 입금 된다**  
PLUS론을 하면 융자금은 바로 학교로 입금된다. 또한 바로 전체 금액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입금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학자금을 위하여 PLUS 론으로 1만5000달러를 당해 학년에 빌리기로 하고 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학기제를 운용하고 있는 학교에는 각 학기 별로 7500달러를 학교의 자녀 계좌로 입금이 이뤄진다.  
하지만, 쿠퍼제를 운용하고 있는 UC와 같은 학교에는 5000달러 씩 쿠퍼에 맞춰 입금된다.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문&박** 1984년 창립 합동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는 1984년 이래로 지난 40년간 위신했던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교육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인권위원회, 소수계학생문제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류사회에서도 적극 활동하며, 한인동포 여러분을 위해 정확하고 친절함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 오랜 경험**

**문일통 변호사**  
• Harvard 대학  
• William and Mary 법과대학원  
• 페어팩스 카운티 현 6선 교육위원  
• 페어팩스 카운티 Planning Commissioner(전)  
• 버지니아 주지사 도시정책 자문위원(전)  
• VA 변호사 자격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전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 전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난민 정책위원  
• 전 북미주 기독교인협회 총연합회 회장  
• VA, MD, DC 변호사 자격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 법률 상담 변호사  
• 전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 전 LG에서 채권 및 담보 업무 담당  
• VA, NY 변호사 자격

**취급 업무** 민/형사 소송, 교통사고, 학생/취업/연수/종교/투자 비자, 각종 이민, NIW, 추방재판/면제, 손해배상, 가정법, 사업체/부동산 매매, 영리/비영리 회사설립, 임대차 계약, 고용 관계, 유서 작성, 상속 수속, 이혼, 입양 등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대표전화 703-941-7395** www.moonparklaw.com  
7617 Little River Tpk., Suite 800 Annandale, VA 22003

# 의학 교육의 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이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서는 1998년 의과대학들이 주도해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자율적으로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3년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설립됐고, 이후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스템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의평원 평가 역량 세계가 인정  
증원 따른 교육 질 우려는 당연  
평가기관 독립·중립 보장돼야

2014년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의평원은 지난 5월엔 재지정(기간 5년)을 받았다. 2016년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로부터도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기간 10년)받았다. 한국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시스템이 세계적 표준에 부합함을 입증한 것이다.

2016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됐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의 졸업생은 의사국가시험, 즉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평가인증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했던 서남의대가 2018년 결국 폐교됐다.

의평원은 지난 3월 성명서를 내고 의과대학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평원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의학교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주요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은 주요 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

고 있는지 평가받게 돼 있다.

정부가 확정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따르면 30개 의과대학은 주요 변화 평가 대상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에 받았던 인증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인증받지 못한 대학은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졸업생의 의사면허시험 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불인증 평가가 반복되면 서남의대 경우처럼 폐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에서 의평원 원장이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고 의평원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

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지난 10일 '교육부 긴급 브리핑에 대한 의평원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와 의평원이 이례적으로 각자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관리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어느 쪽 입장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차분히 따져봐야 할 때다.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교육부 주장의 근거는 각 대학(총장)이 제출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과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에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계획일 뿐이고, 당장 내년 3월부터 1509여 명, 내후년부터 2000여 명이 증원돼 그만큼 더 입학하게 된다. 의평원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지 우려를 표명한 것이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규정에 맞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평원 이사회가 대한의사협회·한국의과대학협회·한국의학교육학회 등 관련 전문 단체장과 추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이사회는 의평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다. 이는 평가인증 기준과 평가 자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교육부가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과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의평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나.

현행 의학교육 평가인증 시스템과 기준이 완벽하다는 주장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의평원 이사회만이 아니라 여러 수준과 단계에서 학생·학부모·환자·국민 등 의학교육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급격한 의대 증원을 앞둔 지금 이사회 확대가 가장 시급한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대다수 의대생과 의사들의 반대에도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요구할 일은 더욱더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의 우려가 크지만, 국민 여론이 다양한 것도 사실이다. 어차피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면 여러 보완책을 통해 애초에 목표한 취지를 꼭 달성하기 바란다. 하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의학 교육의 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지난 25년 이상 발전시켜온 국내 의학 교육 평가인증은 이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윤현배 서울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순위 | 학교이름              | 소재 | 공사업 | 이전 순위 | 총점  |
|----|-------------------|----|-----|-------|-----|
| 1  | MIT               | MA | 사립  | 1     | 100 |
| 2  | 스탠퍼드              | CA | 사립  | 2     | 96  |
| 3  | UC버클리             | CA | 공립  | 3     | 91  |
| 4  | 캘텍                | CA | 사립  | 7     | 89  |
| 4  | 조지아텍              | GA | 공립  | 5     | 89  |
| 6  | 퍼듀                | IN | 공립  | 4     | 88  |
| 7  | 카네기 멜론            | PA | 사립  | 5     | 87  |
| 8  | 텍사스 오스틴           | TX | 공립  | 7     | 86  |
| 9  |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 IL | 공립  | 11    | 85  |
| 9  | 미시간 앤아버           | MI | 공립  | 7     | 85  |
| 11 | UC샌디에이고           | CA | 공립  | 12    | 84  |
| 12 | 코넬                | NY | 사립  | 13    | 82  |
| 12 | Texas A&M 칼리지스테이션 | TX | 공립  | 10    | 82  |
| 14 | 존스홉킨스             | MD | 사립  | 14    | 80  |
| 14 | UCLA              | CA | 공립  | 16    | 80  |
| 16 | 노스웨스턴             | IL | 사립  | 17    | 78  |
| 16 | 유엔                | PA | 사립  | 19    | 78  |
| 18 | 컬럼비아              | NY | 사립  | 17    | 77  |
| 18 | 메릴랜드 주립 칼리지파크     | MD | 공립  | 19    | 77  |
| 20 | 하버드               | MA | 사립  | 23    | 76  |
| 21 | 프린스턴              | NJ | 사립  | 23    | 75  |
| 21 | 워싱턴주립             | WA | 공립  | 25    | 75  |
| 23 | 듀크                | NC | 사립  | 22    | 74  |
| 23 | 콜로라도주립            | CO | 공립  | 19    | 74  |
| 23 | USC               | CA | 사립  | 15    | 74  |
| 26 | 라이스               | TX | 사립  | 30    | 72  |
| 27 | 노스캐롤라이나스테이트       | NC | 공립  | 25    | 71  |
| 27 | 오하이오 스테이트         | OH | 공립  | 27    | 71  |
| 27 | 워싱턴주립 매디슨         | WA | 공립  | 27    | 71  |
| 30 | UC샌타바버라           | CA | 공립  | 27    | 70  |
| 31 | 보스턴유니버시티          | MA | 사립  | 34    | 68  |
| 31 | 펜스테이트칼리지파크        | PA | 공립  | 32    | 68  |
| 31 | UC아리엔             | CA | 공립  | 34    | 68  |
| 31 | 버지니아텍             | VA | 공립  | 30    | 68  |
| 31 | 예일                | CT | 사립  | 42    | 68  |
| 36 | UC데이비스            | CA | 공립  | 34    | 67  |
| 36 | 미네소타주립 트윈시티즈      | MN | 공립  | 37    | 67  |
| 38 | 노스이스턴             | MA | 사립  | 32    | 66  |
| 38 | 델라웨어주립            | DE | 공립  | 42    | 66  |
| 41 | 버지니아주립            | VA | 공립  | 37    | 66  |
| 41 | NYU               | NY | 사립  | 37    | 65  |
| 41 | 밴더빌트              | TN | 사립  | 42    | 65  |
| 43 | 아이오와 주립           | IA | 공립  | 46    | 64  |
| 43 | 로체스터대             | NY | 사립  | 42    | 64  |
| 45 | 에리조나 스테이트         | AZ | 공립  | 41    | 63  |
| 45 | 노던메ธ              | IN | 사립  | 47    | 63  |
| 45 | 펜실베이니아주립          | PA | 공립  | 47    | 63  |
| 48 | 펜실베이니아주립 폴리테크     | NY | 사립  | 51    | 62  |
| 48 | 플로리다 주립           | FL | 공립  | 47    | 62  |
| 48 | 메사추세츠 주립 애머스트     | MA | 공립  | 55    | 62  |
| 51 | 케이스웨스턴리저브         | OH | 사립  | 53    | 61  |
| 51 | 워싱턴세인트루이스         | MO | 사립  | 55    | 61  |
| 53 | 콜로라도스프링스          | CO | 공립  | 52    | 60  |
| 53 | 테네시주립             | TN | 공립  | 55    | 60  |
| 55 | 브라운               | RI | 사립  | 63    | 59  |
| 55 | 데이튼               | OH | 사립  | 37    | 59  |
| 57 | 오번                | AL | 공립  | 55    | 58  |
| 57 | 콜로라도 스테이트         | CO | 공립  | 55    | 58  |
| 57 | 다트머스              | NH | 사립  | 55    | 58  |
| 57 | 미시간 스테이트          | MI | 공립  | 68    | 58  |
| 57 | 버팔로--SUNY         | NY | 공립  | 53    | 58  |
| 57 | 유타 주립             | UT | 공립  | 55    | 58  |
| 63 | 스토니브룩--SUNY       | NY | 공립  | 63    | 57  |
| 63 | 커네티컷 주립           | CT | 공립  | 63    | 57  |
| 65 | 릿저스-뉴브런스위크        | NJ | 공립  | 62    | 56  |
| 65 | 에리조나 주립           | AZ | 공립  | 63    | 56  |
| 65 | 일리노이 시카고          | IL | 공립  | 73    | 56  |
| 68 | 클렘슨               | SC | 공립  | 77    | 55  |
| 68 | 터프츠               | MA | 사립  | 69    | 55  |
| 68 | 휴스턴대              | TX | 공립  | 69    | 55  |
| 68 |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 NC | 공립  | 77    | 55  |
| 68 | 워싱턴스테이트           | KS | 공립  | 47    | 55  |
| 73 | 로체스터대             | NY | 사립  | 63    | 54  |
| 73 | 샌프란시스코주립          | CA | 공립  | 73    | 54  |
| 75 | 드렉셀               | PA | 사립  | 97    | 53  |
| 75 | 오리건 스테이트          | OR | 공립  | 69    | 53  |
| 75 | 텍사스 달라스           | TX | 공립  | 73    | 53  |
| 75 | UC샌타크루즈           | CA | 공립  | 77    | 53  |
| 75 | 아이오와대             | IA | 공립  | 77    | 53  |

## US 최우수 공대 순위, 가주 공대들 상위권 포진

미국의 최우수 공대 명단에 캘리포니아주 대학들이 대거 상위권에 올랐다.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지난 16일 공개한 2024년 최우수 공대 순위에 따르면 1위 매사추세츠공대에 이어 스탠퍼드 대학, UC버클리, 캘리포니아공대가 나란히 2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캘텍은 전년도의 7위에서 올해 3계단을 상승했다. <표 참조> 5위는 조지아텍으로 조사됐으며 퍼듀대(6위), 카네기 멜론대(7위), 텍사스대-오스틴(8위), 일리노이대-어바나 샴페인과 미시간대 앤아버가 공

동 9위에 올랐다. 전년도 대비 각각 1계단과 2계단이 오른 조지아텍과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평균 2계단씩 떨어졌다. 반면 조지아텍의 경우 전년도 대비 1계단이,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는 2계단이 올랐다.

올해 상위권 명단을 보면 UC샌디에이고 제이콥스 공대가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11위에 랭크됐으며, UCLA 사무엘리 공대는 존스홉킨스 화이팅 공대와 공동 14위, USC의 경우 듀크, 콜로라도대와 공동 23위로

각각 조사됐다.

다른 UC계열 캠퍼스의 경우 샌타바버라(30위), 어바인(공동 31위), 샌타크루즈(공동 75위), 리버사이드(공동 83위), 머시드(공동 109위) 등이다. 아이비리그 캠퍼스들은 UC 계열 캠퍼스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하버드 폴슨 공대는 20위, 프린스턴대는 워싱턴대와 공동 21위였으며, 예일대는 버지니아텍 등과 공동 31위로 나타났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가장 순위가 높은 대학은 코넬대로, 텍사스 A&M 대학과 공동 12위에 이름을 올

렸다. 유엔은 노스웨스턴대와 공동 16위를, 컬럼비아 대학은 메릴랜드대와 공동 18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US뉴스는 엔지니어링 관련 취업에 공대 졸업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끝내는 졸업생들은 취업에서도 높은 연봉을 받으며 커리어 개발이나 승진도 빠르다고 전했다.

공대 졸업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2023년 기준으로 중간 연봉은 13만 160달러다.

그 외에 컴퓨터 및 정보연구 과학자(Computer and Information Research Scientist), 산업기사(Industrial Engineer), 화학공학자(Cheical Engineer), 생명공학자 및 생명의료공학자(Bioengineer and Biomedical Engineer), 컴퓨터 하드웨어 엔지니어(Computer Hardware Engineer)가 상위 6인기 직종으로 조사됐다. 장영희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  |   |   |   |   |
|--|---|---|---|---|
| <p><b>주6일 프렌차이즈 \$320K</b><br/>페어팩스 버지니아</p> | <p><b>주6일 Deli \$370K</b><br/>몽고메리 메릴랜드</p> | <p><b>주6일 Deli \$180K</b><br/>PG 메릴랜드</p> | <p><b>주6일 Deli \$250K</b><br/>페어팩스 버지니아</p> | <p>프렌차이즈   카워시   코인런드리   리커   그로서리</p> <p>703.395.3123 <b>FORTUNE</b> Realty Advisors</p> |
|--|---|---|---|---|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원장 **강동호** Don Kang

- 무보험자를 위한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natura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조선·해양풍력 인재 육성... 글로벌 해양특성화대 발돋움”

“국립목포대는 한국 서남권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선도대학’입니다. 이에 걸맞은 인프라도 구축돼 있습니다. 지역 글로벌 기업과 두터운 산학(産學)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복수학위제·온라인 대학 등을 강화해 한국에 꼭 필요한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목포대 송하철 총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과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미래형 첨단 산업에 대한 대학 경쟁력 확보와 함께 우수한 인적 자원을 국내·외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총장은 “목포대는 친환경 조선·해양산업과 해상풍력 등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기관과 함께 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주도해왔다”며 “정부 ‘글로벌(Glocal)대학 30’ 사업 선정 과정에서 대학-지자체-산업간 벽을 허물고 일관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은 세계화(Global)와 지역화(Local)를 합쳐 만든 용어로,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일 전남 무안군 도림캠퍼스 내 목포대 총장실에서 송 총장을 만나 교육철학과 비전을 들었다. 목포대는 전남 목포·무안·나주·영암 등에 캠퍼스가 분산돼 있다.

“해외 대학과 협력이 활발한데, ‘국토 서남권 주력 사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목포와 영암·나주 등은 조선·해양과 해상풍력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인력난이 심각하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동남아시아 대학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송하철 목포대 총장**  
대불산단 등 산학융합캠퍼스  
공부와 현장 경험 한번에 해결  
소형원자로 선박연구소도 개소

몽골·루마니아 대학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국제화 전략을 소개하면.

“복수학위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 대학이 한국 학생을 외국으로 보내는 ‘아웃바운드(Out-bound) 유학’에 치중하는 동안 목포대는 외국 학생을 불러오는 ‘인바운드(In-bound) 유학’을 성공적으로 정착 시켰다. 대표 프로그램인 인도네시아 ITS대학과 복수학위제는 총 8학기 학사과정 중 ITS대학 5학과와 목포대 3 학기를 마치면 목포대 공학사와 ITS 학사학위를 동시에 받는다. ITS대학과는 2021년 9월부터 복수학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학위를 받은 인도네시아 학생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해양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얻는다.”

-복수학위제가 해외에서 호평받는 비결은.

“국내 대학 최초로 산업단지 2곳에 산학융합캠퍼스를 운영해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과를 개설한 점이다. 외국 학생은 영암 대불국가산단과 나주 에너지밸리혁신산단 내 산학융합 캠퍼스에서 산업현장 경험을 쌓은 뒤 취업한다. 올해 9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국제사무소를 설치한다. 국제사무소는 현지 학생이 인터넷 TV(IPTV)를 통해 강의를 들도록 돕는다. 이렇게 현지에서 배운 학생은 목포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송하철 총장이 지난 9일 전남 무안군 도림캠퍼스 내 총장실에서 목포대의 교육철학과 대학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목포대]

케이بل 시험연구센터’ 등을 갖췄다. 친환경 LNG와 그린수소 등 가스산업과 원전 8기 규모인 8.2기가와트(GW, 1GW=1000MW) 규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인프라를 갖춘 상태다.”

-소형 원자로 연구에도 뛰어 들었는데.

“목포대에 지난 2일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선박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SMR 선박 분야는 글로벌 그린해양 산업을 선도할 첨단 미래기술로 꼽힌다. 목포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 운영을 통해 SMR 선박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차세대 무탄소 선박 개발 등에 주력하게 된다. 글로벌 대학 30 사업과 연계될 사업에는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 미포와 삼성중공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대30에 선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오랜 기간 산학협력과 지역협력을 선도해온 목포대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목포대는 2012년부터 R&D 불모지였던 대불산단에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을 집적화하고 전문화하는 성과를 남겼다. 글로벌대30은 대불산학융합지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는 데 탄탄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최경호 기자

-산학협력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글로벌 해양특성화 선도 대학 임지를 탄탄히 구축했다. 영암 대불산단 내 목포대 신해양캠퍼스는 국내 조선산업 관련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공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 목포대 산학협력은 2023년 11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우

수사례로도 선정됐다.”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뽑힌 비결은.

“대학과 산단의 효율적인 통합을 통해 대불산단 활성화와 전남의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남긴 게 인정받았다. 대불산학융합지구는 세계 유일의 ‘액화천연가스(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센터’와 ‘해양

**송하철 총장**=서울대에서 조선해양공학 학사와 석사·박사 과정을 마친 후 2005년 목포대 교수로 임용됐다. 2012년 산업부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단장을 맡은 후 대불산학융합원장, 목포대 기획처장 등을 거쳐 2022년 12월 목포대 총장에 취임했다.

## 이우영의 과학 산책

### 설강화, 사라토프 노트

프랑스 수학자 장빅토르 폰슬레(1788~1867)는 어렸을 때부터 골골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학 졸업 후 공병대에 입대해서 2년 뒤 중위 계급을 달고, 1812년 6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에 참전하였다. 그해 11월 19일, 그는 크라스노이 전투 중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전장에 버려졌다. 천운이었을까. 그는 러시아군 병사에게 발견되어 적극적으로 살아남아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거의 5개월 동안 얼어붙은 평야를 가로질러 불가 강변 사라토프 수용소로 행군해 갔다. 그곳으로 가는 동안 많은 포로가 추위와 배고픔으로 나오었지만, 그는 끝내 살아남았다.

그 후 폰슬레는 1813년 3월부터 15개월간 수용소에 갇혀있었다. 극도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수학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책 한 권도



없는 수용소에서 그는 기하학의 원리에 대한 혁신적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사영(寫影·혹은 투영) 아래서 변하지 않는 기하학적 성질을 연구

한 것이었다. 이때 그가 작성한 노트를 ‘사라토프 노트’라 부른다. 1814년 5월 30일 파리 조약이 체결되어 폰슬레는 석방되었고, 그해 9월 프랑스로 돌아왔다. 1822년 그는 사라토프 노트를 토대로 『도형의 사영적 성질에 관한 논고』를 완성하여 출판했으며, 이 논문은 사영기하학의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사영기하학 하면 흔히 미술의 원근법을 떠올리지만, 그 너머엔 신비하고 경이로운 이야기가 넘친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 주요 내용이 대수기하학

을 포함한 수학의 다양한 분야로 스며들어가 발전하였다.

오늘날에는 영화·내비게이션·로봇·의료영상·보안·건축 등 실생활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니, 이 모든 게 사라토프 노트가 내어준 선물! 극한의 삶 속에서 탄생한 사라토프 노트를 한겨울 눈 속에서 피어난 꽃, ‘설강화(雪降花)’라 부를 만하다. 폰슬레는 평생 고통스러운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피운 꽃은 하얀 눈처럼 눈부시다.

고등과학원 HCMC 석학교수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QR 코드: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http://www.Selfotostudios.com)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커리어 준비하기

# 대학 졸업반 취업 시장 경쟁 매우 치열...인내심 잃지 말고 탐색 범위 넓히면 도움

현재 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매력 있는 채용 공고에는 대개 수백명의 지원자가 몰리고, 채용 감소와 최근 해고된 지원자를 포함해 경력직 지원자들의 경쟁으로 상황은 더 여의치 않다.

하지만, 대학 졸업반 학생들도 알맞은 전략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온라인 구인 게시판에서 지원하는 일반적인 방법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가족, 친구는 물론 지인 또한 구직 활동에서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회를 알고 있으며 소개를 해줄 수도 있다.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취업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 있다.

### ▶학교 동문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학교 동문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다양한 산업과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커피 챗이나 온라인 정보 인터뷰와 같이 격식 없는 미팅을 마련하여 진로와 구직에 대한 조언을 논의

할 수 있다. 네트워킹을 하는 동안 관계를 쌓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집중하되, 직접적으로 취업 기회를 묻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채용 기관을 통하라

채용 기관을 통한 임시직 또는 계약직은 인력 채용의 훌륭한 진입점이 될 수 있다.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고 회사 문화에 잘 맞는 것을 보인다면 이것이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직접 회사에 연락하라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LinkedIn에서 채용 관리자 혹은 부서장 등 관련자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회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간결하게 설명하는 맞춤형 이메일을 보내자. 이런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취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기회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에 가장 효과적이다.

### ▶구직 탐색의 범위를 넓혀라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말자. 지리적인 검색 범위를 넓힘으로써 가까운 지역에서는 구할 수 없던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라

자신의 기술, 특히 정량화가 가능하거나 분석적인 기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고려해본다. 이를 통해 취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다.

### ▶소프트 기술을 강화하라

지속적으로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전문적인 에티켓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데, 이러한 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고용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 ▶지속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라

구직 활동은 실망스러울 수 있다. 특히 빈번한 거절을 받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인내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피드백에 적응하며 노력을 유지하자.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구직 활동은 결국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 회복력 및 탐구하고 적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러한 단계를 따르며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선함으로써 진로 목표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제임스박 대표 · LA 커리어 코칭

대입 들여다보기

# 대학원생도 FAFSA 재정정보조 신청 가능...부모 아닌 본인 수입·자산만 기입해야

많은 고교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대학원 또는 프로페셔널 스쿨 진학을 꿈꾼다.

대학 학부도 그렇지만 대학원 또한 공부하는데 적잖은 돈이 든다.

‘에듀케이션 데이터’(ED)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석사 프로그램 학비는 보통 연 5만 4000달러에서 7만 3000달러 사이다. 전공과 학교, 프로그램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난다.

대학원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연방 무료 학비보조신청서(FAFSA)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2022~2023학년도에 풀타임 대학원생은 평균 2만 8300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원생으로 FAFSA를 작성하는 것은 학부 때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대학원을 위한 FAFSA는 어떻게 다르고, 연방 재정정보조 프로그램 중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학부 기간에 FAFSA를 접수한 적이 있다면 대학원 때도 기존 연방 FSA ID와 패스워

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학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때도 FAFSA를 매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는 연방 재정정보조 프로그램은 학부 때와 차이가 있다.

대학원의 FAFSA는 학생의 재정자료만 요구한다. 또한 대학원생에게 가능한 연방 보조의 종류에는 교사자격증(teaching credential)을 추구하는 대학원생만을 위한 펠그랜트, 다 이렉트 비보조 융자( unsubsidized loan), 대학원 플러스 융자, 연방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 등이 있다.

대학원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FAFSA 정보에 근거해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미국 시민이거나 자격을 갖춘 비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적합한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며, 해당 대학에 정식 학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학부생과는 달리 대학원생은 FAFSA를 작성할 때 부양가족(dependent)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독립적인(independent) 학생으로 고려된다.

이 말은 재정정보조 신청서에 부모의 개인 및 재정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부 대학원생은 부모의 집에 살면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피부양자로 생각하고 부모의 재정 정보를 FAFSA에 기입하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학생이 24세가 되었거나 대학원생이라면 피부양자가 아닌 independent로 고려된다.

그래서 오직 학생의 수입과 자산만 재정정보조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원생은 FAFSA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대학원 과정에 합격한 뒤 StudentAid.gov에서 FAFSA 온라인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PDF 파일을 프린트해서 종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800-433-3243)로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다.

FAFSA를 작성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첫째,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재정 정보를 수집한다. 두 가지 정보의 상세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소셜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가장 최근의 택스 리턴 사본, 은행 스테이트먼트, 자산 기록, 비과세 수입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IRS) 자료를 불러오는 도구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상세 재정정보를 불러와야 할 수도 있다.

둘째, 어떤 대학원인지 밝혀야 한다. 온라인 FAFSA를 제출할 때 최고 20개 대학원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종이 신청서는 최고 10개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해당 학교의 연방 학교코드를 찾아야 하는데 이 코드는 보통 대학의 재정정보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셋째, FSA 로그인 정보와 ID를 확인하는 것이다. 학부 때 FAFSA를 제출했다면 같은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접수하지 않았다면 StudentAid.gov를 통해 새 FSA ID와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빨리 FAFSA를 접수하는 것이다. 재정정보조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매년 10월 1일부터 FAFSA가 오픈하니 가능한 일찍 접수하고, 어카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빈센트 김·카운슬러 어드미션 마스터즈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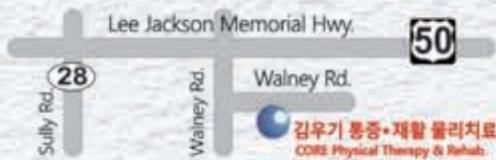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미스터리 소설이란 이런 거다” 101번째 책 낸 히가시노

한여름 호화 별장에서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날’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한데 모이고, 그곳에 가서 교이치로 형사가 나타난다. 이 고전적 정취가 가득한 군상극은, 히가시노 게이코(東野圭吾·66)라는 대작가의 손에서 장르문학의 황금시대를 연상케 하는 정교하고 치밀한 본격 미스터리로 완성됐다. 최신작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북다)의 국내 출간을 계기로 히가시노 작가를 서면 인터뷰했다. 1986년 『졸업』으로 시작해, 한-일 양국의 독자로부터 오랜 세월 큰 사랑을 받은 ‘가가 형사 시리즈’의 12번째 작품이다. 신작으로 작가와 이야기할 수 있어 팬으로서 무척이나 기뻐했다. (출판사에 따르면,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 히가시노는 도전기 작가와 ‘미스터리 작가’라는 유대감으로 이번 인터뷰에 응했다. 히가시노의 요청으로 얼굴 사진은 실지 않는다.)

##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 출간



2018년 제작된 영화 ‘기도의 막이 내릴 때’의 한 장면. ‘가가 형사 시리즈’의 인기작 중 하나다.

[사진 ‘기도의 막이 내릴 때’ 제작위원회]

신작은 ‘本格’과 ‘사회파’라는 미스터리 두 장르가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다. 구상한 계기와 특별히 공들인 부분 묻자 작가는 이렇게 답했다. “가가 형사 시리즈 중에서도 『돌 중 누군가가 그녀를 죽였다』와 『내가 그를 죽였다』는 본격 요소가 특히 짙다는 평입니다. 그 계보의 작품을 언젠가 쓰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파를 의식한 건 아니지만, 리얼리티를 추구하다 보면 현대성이나 사회성이 작품에 반영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들을 장기 말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묘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눈앞에서 인물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피가 흐르는 인간”을 묘사하기 위해 애썼다는 작가의 말을 들으니 ‘역시 노력의 결과구나’ 싶어 새로운 감동이 있었다.



히가시노 게이코 직접 정의한다면 신의 101번째 소설 『작을 어떤 작품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은지에 죽였다』 한국어판. 해서도 작가는 명쾌하게 답했다. “‘미스터리

란 어떤 소설인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소설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과연,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들뜬 수밖에 없는 말이다. ‘포와로’나 ‘엘러리 퀸’ 같은 탐정이 등장해 마지막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고전 본격 미스터리와 추리소설을 읽는 이들의 출발점이다. 근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사회파’ ‘힐링’ 장르 쪽에서 활약한 작가가 이번 작품을 통해 고향으로 귀환한 느낌이라 반가웠다. 본격 미스터리라는 장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작가 또한 변치 않는 애정을 드러냈다. “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터리와 고향이라 생각합니다. 때때로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 때는 활짝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곳이지요.”

‘가가 형사 시리즈’에서 특히 흥미롭게 느낀 것은 가가 형사의 캐릭터다. 미스터리 탐정은 괴팍한 경우가 많은데, 가가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그것이 오히려 특이하고 어떤 전형을 깬 것으로 느껴졌다. 이 인물의 탄생 비화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학생이라 시리즈 캐릭터로 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검도 실력이 뛰어나고 다도를 즐기는 설정이라 젊은 사무라이 같은 인물로 조형했습니다.” 작가가 “앞으로도 그(가가)의 활약을 선보이고 싶습니다”라고 답했으니, 시리즈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이번 소설은 작가의 101번째 책이다. 한 사람이 일생 100권 넘는 책을 끊임없이 썼다면 그 동력

은 분명 특별할 터이다. 소설가로서 자신을 다잡고 집필에 집중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묻자,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미스터리 붐이 한창일 때 데뷔했는데, 1년에 대여섯 편씩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아카가와 지로(赤川次郎)나 니시무라 교타로(西村京太郎)처럼 10편 이상 집필하는 분도 계셨죠. 그래서 1년에 세 작품 이상 쓰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7살이었습니다. 셀러리맨의 정년퇴직이 60살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쓰면 작품이 100개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죠.”

앞으로의 목표를 “새로운 대표작을 쓰는 것”이라고 간결하게 답한 작가는 1985년 데뷔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담백한 감성으로 젊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비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젊은이들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할 것, 도전할 것, 호기심을 가질 것, 귀를 기울일 것. 자칫 흔한 조언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오랜 세월 직접 실천하며 그 가치를 입증해 온 작가의 말이기, 그 세월만큼이나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작가의 『백야행』 『유성의 인연』을 보고 미스터리에 관심을 가져 글을 쓰게 됐다.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그의 덕분인 셈이다. 전 인미답의 길을 여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기원한다. **도전기작가**

# 난 ‘파리’도 맞힐 수 있다... ‘올림픽 3수’ 양궁 이우석

## 올림픽 출전권 따는데 12년 걸려 ‘많이 울며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 최소한 단체전전 금메달 꼭 딸 것’

세 번의 도전 끝에 힘겹게 파리행 티켓을 따다. 양궁 국가대표 이우석(27)이 생애 첫 올림픽에서 금빛 과녁을 겨냥한다.

한국 선수단은 27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획득을 목표로 세웠다. 선봉에는 양궁 대표팀이 선다. 양궁에는 총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한국은 3개 이상을 바라본다. 흥승진 양궁 대표팀 총감독은 “피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 100%”라고 말했다.

그동안 올림픽에선 여자 선수들이 맹활약했다. 하지만 이번엔 남자대표팀 전력도 만만찮다. 도쿄올림픽 단체



### 이우석

- 생년월일 1997년 8월 7일 (인천)
- 소속 코오롱엑스텐보이즈
- 세계랭킹 남자 리커브 3위
- 주요 성적
  - 2015 아시아선수권 2관왕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 2
  - 2023 세계선수권 금메달 2
  -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2-등

세 번의 도전 끝에 꿈에 그리던 2024 파리올림픽 무대를 밟게 된 양궁 국가대표 이우석. “개인전도 옥심나지만 단체전 2연패를 이루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 금메달을 합작한 김우진(32·청주시청)과 김제덕(20·예전군청)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이우석이 합류

하면서 ‘드림 팀’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양궁을 시작한 이우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극마

크를 달았다. 그러나 2016년 리우올림픽 최종 평가전에선 8명 중 4위를 기록해 3명에게 주어지는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2020년 열린 도쿄올림픽 평가전, 그리고 대회가 1년 미뤄져 다시 열린 평가전에서도 그는 최종 8명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한 고비를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은메달을 따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열린 평가전에선 2위에 올랐지만, 대회가 1년 연기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이우석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올해 4월 열린 평가전에서 꿈에 그리던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이우석은 “12년이 걸린 도전이었다”며 “약처럼 준비했다. 그동안 ‘안 힘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많이 울기도 했다. 그런 시간이 있어서 더욱 단단해진 것 같다”고 했다.

분위기도 좋다. 이우석은 지난 5월 경북 예천에서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개인전 결승에선 세계랭킹 2위인 김우진을 이겼다. 대표팀 3명의 선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호흡을 맞춰 발사순서나 타이밍 등 호흡도 문제 없다.

양궁대표팀은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다. 충북 진천선수촌에 양궁 경기가 열리는 파리 앵발리드 사로를 그대로 본뜬 세트틀 만들어놓고 스포셜 매치를 두 차례 치렀다. 후원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로봇 공사와 승부를 펼치기도 했다.

이우석은 “나는 올림픽이 처음이지만 김우진·김제덕 선수는 경험이 많으니까 잘 따라가겠다. 다른 건 몰라도 단체전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했다.

김효경 기자

## 독자가 행복 해진다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MD·DC 면허**

**이력**

- 대외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mailto:mkim@prosperlawpllc.com)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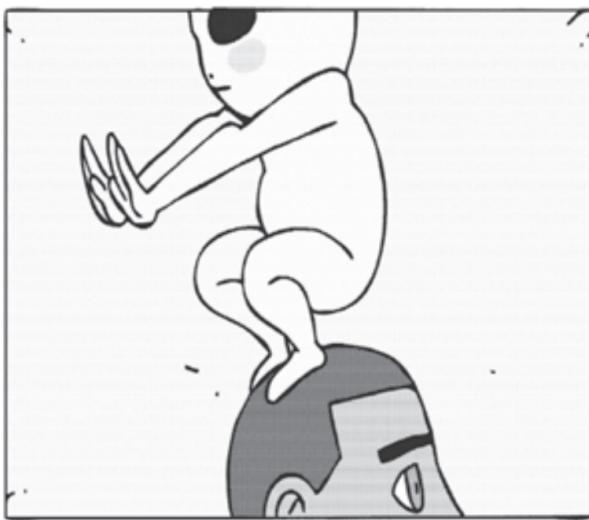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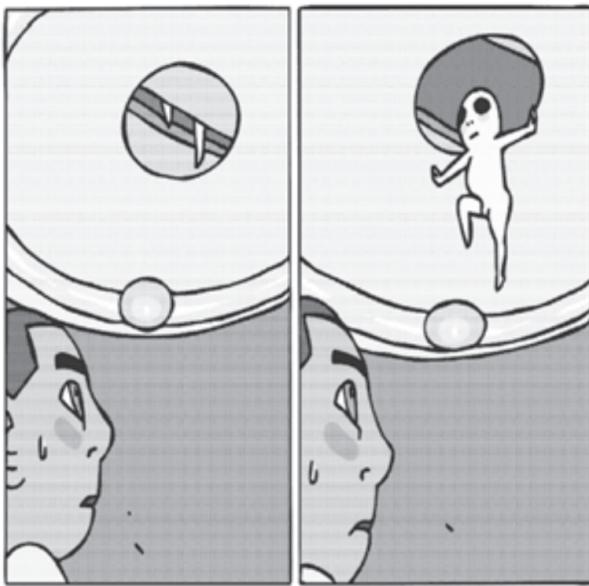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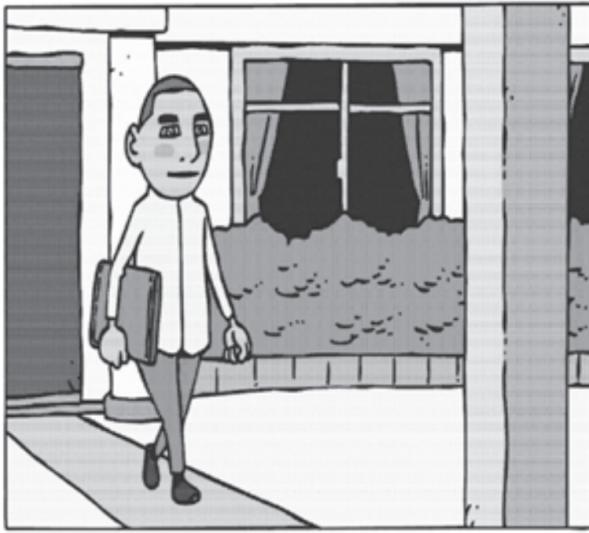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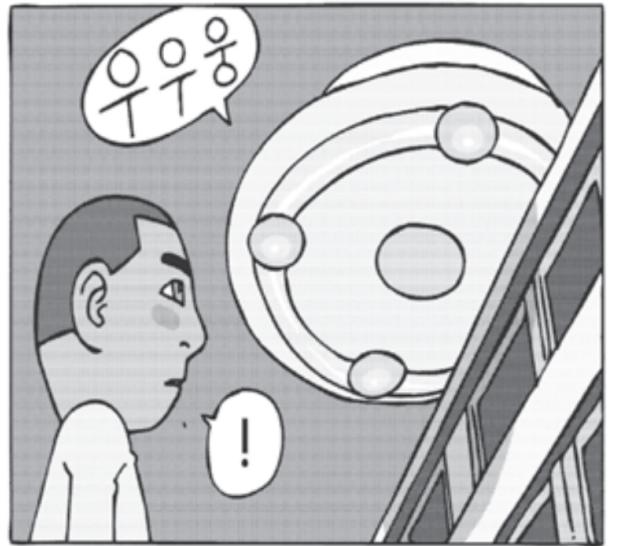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외계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7월  
구  
인  
광  
고

### 사업체 매매

####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문의  
202.553.8551

###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 회계직원 구함

####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 코너스톤 종합보험

####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한달광고유료게재,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판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 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판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판으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견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코스, 홈비즈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한 이미지전달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자세한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인/구직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애난데일.시원한 사무실 파. 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어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력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지'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근무조건: 풀타임  
-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엇시티 240-426-5678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싱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음식점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속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엇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 식당/제과/델리/식품

▶▶텍사스도넛 센터빌 베이커보조 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 한달유료게재,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중앙일보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켄트, 스킨  
케어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켄트,  
스킨케어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지, 프레스,  
빨래 /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스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 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트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위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감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에어콘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 정비/바디샵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 기타 구인/구직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고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703-231-5572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애난데일 예천근처 반지하  
방1 / 화장실/샤워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 부동산 렌트

방3, 화2, 유포 (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메릴랜드 콜롬비아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관리, 전체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류턴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소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육실별도/세탁기 월 \$640(유포)  
대답요면 메세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군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 방 렌트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가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  
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애난데일 홈디포 근처 방 렌트 유포  
703-598-5719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  
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단독주택 \$ 524,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Ground/Split Level, NO HOA, 0.25 Ac  
(1층에 방2, 화1 시니어 거주 편리)

1층 콘도 \$ 234,000  
방2, 화 2 / 콘도피 \$350  
상가, 병원, 그로서리등 교통 편리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계제, 내용보내실곳: kclass2018@gmail.com (계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1

능. 출입문별도 금연자 즉시입주 (571)243-6295  
아난데일메사아장로교회뒤저하방/유포 703-887-5173  
FairfaxVA버엔나천철역근처 66도로495 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H-Mart 10분거리2층타운홈취사가  
구즉시입주가능방1\$600방2\$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개인사위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차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TTA 애난데일콘도 방1, 주방/욕실/지정주차  
가,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애난데일 지역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시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 콘도, 방2, 화장실2, 2층, Loft애난데  
일도서관서동쪽 0.7마일 콘도방1,  
취사가, 월 \$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양)  
202-985-9191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큰방하녀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가능,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사용공간룸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  
일, 병원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 부동산 매매

##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4, 화4, 편리한렌블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샵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시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나닝 /  
아래층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Sea 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근무)  
자기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seafood carry out  
2.pickup store(bowie) \$30,000.  
3.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미셸 & 케빈 신 부동산  
건물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샤핑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703-395-3128 / 571-243-5797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샵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시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아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말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걸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분들도 환영! 직접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밍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샵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 중고품/기타매매

토요타 2005년식 코롤라 199000마일  
에어컨. 히팅. 4타이어 아주좋은  
모든상태좋은  
703-419-0337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 건축/페인트/마루

▶▶A HOME STAR  
CONSTRUCTION 리모델링 부엌, 화  
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  
트랙터 MR. SONG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텍,  
그외모든공사,주정부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트시티, MD)

##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마루

토탈가렛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순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차문, 식탁유리, 거울장  
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샤워도어, 자동차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Select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범양해운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mailto: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http://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mailto: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lice: Rob you have been on my back all day. What is your problem?

앨리스: 롬 당신 하루 종일 트집을 잡네. 도대체 뭐가 문제야?

Rob: No I haven't, I think you're making it up.

롬: 내가 뭘, 당신이 괜히 그러는 거야.

Alice: You've criticized everything I've done this morning.

앨리스: 아침부터 내가 하는 일마다 맘에 안들어했잖아

Rob: I think you're much too sensitive.

롬: 당신이 예민한 것 같은데.

Alice: I think I know what your problem is.

앨리스: 난 당신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애.

Rob: What do you mean problem?

롬: 왜 그러다니?

Alice: You had an accident with the company car that you got yesterday.

앨리스: 당신 어제 회사 자동차로 사고가 났잖아.

Rob: It wasn't my fault.

롬: 내 잘못은 아니었어.

Alice: Well it wasn't my fault so don't take it out on me.

앨리스: 내 잘못도 아니었으니까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

Rob: I guess you're right. I'll back off.

롬: 당신 말이 맞겠지. 이제 안그럴게.

기억할만한 표현

▶ to be on (one's) back: 못살게 굴다

"The teacher is on my back about my attendance.

take it out on (someone); (~에게) 화풀이하다

(Alice and Rob are in the kitchen...)

(앨리스와 롬이 부엌에 있다...)

"(선생님이 출석률 때문에 날 못살게 구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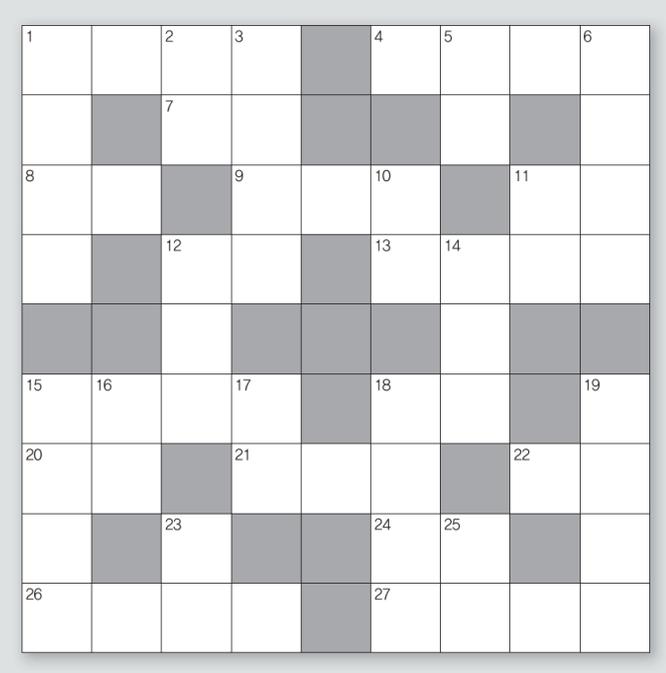
▶ make (something) up: 이야기, 변명거리 등을 만들어내다

"She made up a very good excuse for being late." (그녀는 지각한 데 대해서 온갖 변명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 back off: 그만 괴롭히다, 참견하다

"When I told him to back off, he got angry." (날 좀 그만 못살게 굴라고 했더니 그는 화가 났습니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1)문인들이 서재에서 쓰는 붓·먹·종이·벼루의 네 가지 도구 (4)야구에서, 앞서 던지던 투수를 대신하여 경기 중간에 나가서 던지는 투수 (7)아버지인 임금 (8)올림픽 따위의 규모가 큰 체육 경기에서 경기장에 켜 놓는 햇불 (9)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그의 ~은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마라이다. 그 일이 기쁜 일이라면 내일까지 기뻐할 수 있게 (11)불을 붙여서 주변을 밝히는 데 쓰는 초 (12)선대의 임금. 돌아가신 ~의 뜻을 받들기로 함시다 (13)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15)밤에 묘지나 습지의 찬 곳 위로 어른거리는 푸른 불빛 (18)별이나 불빛이 가려진 곳. 나무 ~ 아래에서 쉬었다 가자 (20)거북이와의 경주에서 도중에 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에게 지고 말조 (21)굵고 긴 통 땅이. □자□ (22)시끄러운 소리 (24)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나이 차이 (26)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 □목□□ (27)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가 만발하여 마치 별유천 지에 온 것 같다. □□요□

세로열쇠

(1)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집 문 앞이 시장을 이 루다시피 함 (2)아버지와 같은 스승 (3)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종잡지 못함 (5)정제하지 아니한 그대로의 기름 (6)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둥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구□□ (10)헛물이 좋은 개. 진돗개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이다 (11)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습기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일 (12)어진 정치를 베푼 관원을 표창하고 그 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석 (14)햇빛을 받아 수면이 반짝이며 잔잔하게 이는 물결. 그녀는 호수의 물위에 곱게 이는 ~을 바라보았다. □비□ (15)떡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따위의 열매로 만든 목 (16)인뿔 솔기를 발이 얇고 성긴 길을 써서 곱솔로 박아 지는 겹옷 (17)타는 물체에서 튀는 작은 불덩이 (18)초목을 베고 남은 부분 (19)앞이 푸르게 우거진 숲과 향기로운 풀. 여름철의 자연 경치. 녹□□□ (23)흥부의 욕심 많은 형 (25)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 그는 불쑥 치미는 ~를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스도쿠

|   |   |   |   |   |   |   |   |   |
|---|---|---|---|---|---|---|---|---|
|   | 8 |   |   | 9 | 6 |   | 1 |   |
| 2 |   | 1 |   |   | 8 |   |   |   |
|   | 7 |   |   |   | 2 |   | 3 |   |
| 7 |   |   |   |   | 1 | 3 | 9 | 5 |
| 1 | 3 |   |   |   | 7 | 6 | 4 | 8 |
|   | 9 |   | 3 |   |   |   |   |   |
| 5 |   |   |   |   | 3 |   | 8 |   |
| 8 |   | 3 | 1 |   |   | 4 |   | 6 |
|   |   |   | 2 |   |   | 1 | 7 |   |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3 | 7 | 1 | 5 | 8 | 2 | 6 | 9 | 4 |
| 9 | 5 | 4 | 6 | 7 | 1 | 3 | 2 | 8 |
| 6 | 8 | 2 | 3 | 4 | 9 | 7 | 1 | 5 |
| 1 | 2 | 7 | 4 | 5 | 3 | 8 | 6 | 9 |
| 8 | 4 | 9 | 7 | 2 | 6 | 5 | 3 | 1 |
| 5 | 6 | 3 | 1 | 9 | 8 | 2 | 4 | 7 |
| 4 | 3 | 8 | 2 | 1 | 5 | 9 | 7 | 6 |
| 7 | 9 | 6 | 8 | 3 | 4 | 1 | 5 | 2 |
| 2 | 1 | 5 | 9 | 6 | 7 | 4 | 8 | 3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50  |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br>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카드 정보 (Card Info)               |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br>카드 번호 | 카드 유효 3자리<br>EXP. DATE: / /<br>month year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br>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아침유경험 양식국 특별우대, 숙식제공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알래스카 식당 (907)545-5933

딜리버리/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식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Hello K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박혁박사(하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러치라 살매 Up to 40% 핫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홍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러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러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